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정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원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4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4월23일은 최초로 제정된 '세계 책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보시 가운데 가장큰 보시인 법보시를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는 올해부터 봉축연등을 이웃에 보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보시실천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전속에 나타난 보시정신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보시

법시는 자타에 다 이익하니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삼계로부터 뛰어나게 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해심 보시심을 성취하게 한다. 〈금광명경〉

보시하는 힘을 수행해 완성하면, 이 보시하는 힘으로 인하여 삼불할 수 있게 된다. 〈광명경〉

보시가 보살의 정토다. 보살이 성불할 때, 온갖 것을 능히 베푸는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난다. 〈유마경〉

만약 경전의 가르침과 세속의 분전을 보시하면 막막한 큰 지혜를 과보로 받게 되며, 의약을 보시하면 권안하게 공포를 떠나게 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그 눈이 항상 밝아지며, 음악을 보시하면 그 목소리가 아리따와지며, 침구를 보시하면 권안하고 즐겁게 자게되며, 하인을 보시하면 시종이 항상 주위를 에워싸게 되며, 좋은 밭을 보시하면 창고가 가득 차게 된다. 〈육취윤회경〉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보시할 재물이 없을 경우에는 남이 보시를 행할 때에 수희심을 일으켜야 한다. 수희하는 복보는 보시와 매한가지여서 다를 것이 없는 까닭이다. 이는 아주 행하기 쉬운 일이니, 누구라 불가능하리? 〈인과경〉

간탐을 실행해서 큰 부를 얻는다면 것은 있을 수 없고, 보시를 실천해서 큰 부를 얻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대집경〉

다섯가지 보물이 있어서 보살의 보시를 청정하게 만들어 주는바,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보시를 행하면서도 바랜이 없음이요, 둘째는 보시하는 마음에 집착함이 없음이요, 셋째는 보시받는 사람에게 상을 일으키지 않음이요, 넷째는 보시에 대한 과보를 염두에 두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보시하는 마음에 후회함이 없음이다. 〈보수보살보리행경〉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복전에 보시할 때는 기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친우에게 보시할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우바한계경〉

보시란것은 큰 부의 문이 된다. 〈분수사리정율경〉

관련기사 2 · 12면

유니세프 불교인클럽 | 이웃을 돕는 사람들 | 우리는 선우

"지구촌 기아돕기 나섰다"

의료 급식지원·기술교육 전개…사진전등 모금활동도

유니세프 불교인 클럽, 이웃을 돕는 사람들, 우리는 선우 등이 전세계 어린이들의 기아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지구촌 기아돕기 구호활동에 불교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 어린이들의 생존 보호 활동을 펼치는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불교인클럽(회장 제원스님 김융복지관장)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첫사업으로 사랑의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구성되는 유니세프 불교인클럽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사랑의 걷기대회와 빈곤퇴치 사진전, 사랑의 콘서트 등을 통해 모금활동을 전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불교인클럽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불교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어린이들의 긴급구호와 교육, 질병예방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불련 자비의 집도 오는 6월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단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발족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추진위원들은 오는 7, 8월 동남아 불교국가들을 방문, 불우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실태와 환경, 구호방법을 조사한뒤 9월부터 의료지원, 현장무료급식 등 본격적인 세계기아, 질병, 아동구호기구로써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캄보디아 감풍고아원에 매달 4백불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해외 난민구호의 등 달기' 운동을 펼쳐 수익금 전액을 이들을 돕는데 쓸 예정이다. 또 우리는 선우는 내친김으로 고아가 된 이들을 국내로 초청, 인쇄와 목공기술을 습득시켜 자립화의 길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도 저금통 '자비의 돈' 모금운동을 펼쳐 국내결식아동 및 프완다난민구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도 국제사업부를 통해 인도 · 동남아 등 기아 질병 분쟁퇴치를 위한 구호사업을 펴고있다. 〈김중근 기자〉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부처님 오신날이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봉축위원회는 5월 한달을 연등축제기간으로 정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봉축포스터 6천매를 전국 각 사암과 지역 봉축위에 보급하고 있다.

5월5일 남한산성 걷기대회

본사 · 마음의 전화 '새싹불자를 키우자' 첫 행사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현대불교신문(발행인 김광삼)은 청소년상담기관 마음의 전화(대표 도각스님)와 공동으로 5월 5일(일요일)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청소년 남한산성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가 주관하고 목어싸물관(관장 박찬수) 협찬으로 추진되는 이 행사는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 민해기념관 관장)가 인솔, 현장 강의로 백안 각성스님과 승군의 얼이깃든 호국불교의 성지 남한산성(사적 제 57호) 을 순례하며 역사도 배우고 자연환경도 가꾸며 가족사랑도 느끼는 산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현대불교신문이 연중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새싹불자를 키우자'의 첫 야외 행사다.

망월동 등불켜기운동

불교인권위, 5월24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오는 5월24일 오후7시 광주 망월동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민주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망월동 등불켜기 운동을 전개한다.

인권위는 정토발원을 통해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호국영령 천도를 위한 등불켜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교정책시정 요구서

조계종, 국방부에 전달

조계종 총무원은 대정부관련 불교계 현안문제 시정 일환으로 지난 17일 국방부에 '군내 종교정책시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총무원은 요청서를 통해 △병역법 · 군인사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 군종수의 현경성 유지 △각종학교로 지정된 중앙승가대 졸업자 군종장교인정 △호컨소 입소 기록카드를 근거로 군내 종교시설과 예산책정을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15대 국회 불자당선자 인터뷰 3면
'세계 책의 날' 특집 2 · 12면
사법연수원 불자회 창립 15면
한·일 천태종 공식 교류 '첫발' 14면

동참안내 11면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42-1740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현대불교신문은 중 · 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데생교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 · 고교에 보급합니다.

중 ·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급합시다

동참해주신 분



△설정 조계종종회의장: (5구좌) △광우 조계종비구니회장: (3구좌) △법조 법천사주지: (1구좌) △혜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동산고 (1구좌) △혜원 한마음선원주지: (3구좌) △완상 은석사주지: 천안고 북일고 (2구좌) △김재웅법사:(3구좌) △박완일회장: (1구좌) △연기영동대교수: (1구좌) △김영숙법사: (1구좌) △이수복: 대곳중 (1구좌) △감연희: (1구좌) △정병천: (1구좌) △서종학:(1구좌) △손갑선: (1구좌) 〈4월 18일 현재 126구좌 접수〉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cm를 높이 55cm 폭 35cm로)
◇기술지원: 법종사 (대표 김형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은행입금 후에 반드시 현대불교신문사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한정보급!

팔만대장경을 아십니까 ?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의 총칭으로 경전, 율전, 논장의 삼장一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이며, 율전이란 불교도의 생활규범이며, 논장은 경과 율에 대한 조사들의 논문입니다.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행된 구판목판, 대장경은 1231년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087년까지 무려 57년에 걸쳐 조판되었는데, 중국의 정경에 전주어 그 무렵으로서는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산스크리트 무인시대(1)에 불안된 이 구판 대장경은 고종 19년인 1232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그만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 년 뒤인 12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불사를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되니, 십육 년에 걸쳐 이 큰 불사의 결실이 바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한편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하다 해무의 노화림이 심해져서 서울의 지천사오조당에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해조임금 때인 139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보관한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경전 권수가 팔만여 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리킬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등에서도, 가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품 복제경판을 보급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명이 모여지야 가능합니다.


A형


B형

▪ 가로 69.5cm, 세로 23.9cm로 원본과 같은 크기 입니다.
품위있는 구양순체에 원판각인상태 그대로의 A형과 금박을 입힌 B형 두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판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인아십경원판복각본의 탁본 1매와 보증서를 드립니다.

살아숨쉬는 역사를 소장하십시오

세계문화재 팔만대장경을 소장하시는 분은 품위있고 편안한 만족과 함께 21세기대장경을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문화인의 긍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않는 마음의 뿌대로 삼으십시오

팔만대장경에는 무히앞에서도 꺽이지않은 조상의 고귀한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의 호국정신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800년전 선조들의 숭경과 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 정신이 한자 한자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감을 느끼실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진품복제경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 반야심경
크기 : 원판의 크기와 동일 (가로 69.5cm, 세로 23.9cm)
재질 : EPOXY
서체 : 구양순체
가격 : ₩200,000
제작 : 고려대장경 연구소
구입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

사 설

진정한 국민축제는

—초파일 봉축행사 준비에 부쳐

부처님오신날이 꼭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님오신날은 본래 우리 민족의 민속명절이다. 불교가 유입되면서 재래민속과 상보적 관계를 가지며 새로운 민속문화를 창조한 대표적인 명절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갖가지 다채로운 행사 가운데 동방, 즉 '밝음'의 민족정신을 실현화시키면서 탄생된 것이 연등행사다. 지혜를 상징하는 해뜨는 나라, 새벽을 여는 밝음의 정신을 불교의 반야사상과 부합되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민족의 역사계승과 깨달음을 열어 새롭게 나아가며 현실생활에서의 구현을 위한 '깨달음의 사회화'에 걸맞는 범국민적 축제로 기려져야 한다.

이에 행사의 주역이 되는 각 종단과 스님 신도 모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축에 그치지 않는 행사, 모든 국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갖고 어둡고 외로운 곳에 연등을 밝히는 봉축 행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한달 앞둔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이시점에서 우선 작은 나눔에서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웃에 연등나누기다. 연등을 밝히는 의미는 마음에 가려있는 어둠을 밝혀 밝은 마음·밝은 미소·밝은 이웃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다. 부처님 앞, 절 마당에 밝혀 복과 지혜를 기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회용 컵에 연잎을 붙인 작은 연등을 이웃과 나눠 자동차에서도 책상위에서도 부처님오신 뜻을 기리도록 하자. 다시말하면 화려한 대형축제 보다는 이땅 구석구석에 자비의 연등을 달때 초파일은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연등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벌일 제등행진을 명실상부한 문화행사로 강화해야 한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는 대단히 복잡한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각종 시위의 행렬조차로도 부대껴야 하는 시민들에게 연등행렬이라고 해서 모두가 즐겁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회용 전시행사로서의 효과보다 거리 곳곳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등을 달아 시민은 물론 외국관광객들도 거리를 오가며 아름다운 등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동시에 사찰 마당이나 공터 혹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개개인의 마음에 심어져 시민문화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봉축위의 구성이다.

봉축위가 중앙에만 있어 행사의 일관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풍습과 취향에 맞는 행사를 구성하여 포교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중앙은 지방에 긴밀한 연계와 추진력으로 특성화를 장려하여 거국적 행사가 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을 통한 봉축행사의 세계화이다. 이제 세계는 모두 안방에 있다. 급변하는 정보의 신속한 활용없이는 현사회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올해부터 인터넷에 봉축홈페이지를 띄운다고 한다. 한국불교의 특성, 혹은 한국민족의 문화현상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적 통신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모든 생명있는 자의 축제일이다. 참으로 좋은 날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한 마음에 깨우쳐 지고, 한 등의 밝은 빛이 온 우주에 밝혀질 때 깨달음의 사회화는 실현될 것이다.

날마다 좋은 날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부처님오신날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거듭 태어나게 할때 그 값이 커진다. 국민들은 화려한 쇼보다는 조촐한 초파일 연등을 보다 종교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열 린 마 당

사찰 도서관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은 제31회 도서관주간이고 4월 23일은 올해 처음 제정된 '세계 책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도서전 개최, 독서교실 운영 등 각종 책관련 행사가 펼쳐지고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동도 활발하다. 교계에서도 작게는 수백권부터 많게는 만여권까지 다양한 불서를 구비한 사찰 도서관이 점차 늘고 있어 바른신행의 기초다지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사찰도서관 현황과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편집자 주〉

◇사찰 도서관(자료실) 현황

도서관(자료실)	보유장서	연락처
통도사	1만권	(0523) 84-2035
조계사	2천권	(02) 720-1390
강남포교원	3천5백권	(02) 539-2631
광명 금강정사	3천5백권	(02) 808-4936
삼선포교원	3천권	(02) 923-0582
사천왕사	2천권	(02) 939-3900
부산불교교육원	7천권	(051) 466-4080
부산 삼광사	8천권	(051) 808-7111
여수 석천사	3천권	(0662) 666-1770
금강불교대학	5천권	(02) 464-3306
*동국대 불교학자료실	3만권	(02) 260-3458
*중앙승가대 도서관	5만5천권	(02) 925-5509
*불교방송 조사자료부	1만4천5백권	(02) 705-5281

*표는 일반인에도 공개하는 불교도서관

이용률 저조…관리전산화·홍보 필요

성 재 도 〈부산불교교육원장〉

부산불교교육원 도서관은 지난 90년 4천5백여 권으로 출발해 현재 5천여 권의 불교도서와 슬라이드, 비디오, 각종 단행본 등 모두 7천여 불교자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 대상자의 제한은 없으나 주로 교육원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적은 수지만 일반인들도 불교서적을 열람·대여해 가고 있다.

이용자는 한 달 평균 2백여명, 대여권수는 4백여 권으로 한사람당 2권꼴로 대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기초교리·사찰예절·불교상식·부처님 일대기 등 내용이 쉬운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이용률은 월 평균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불교교육원 도서관은 교육원생뿐 아니라 지역민 등 일반인들에게도 더 많은 이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각종 홍보는 물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현재 도서관 운영의 최대 난점으로 꼽히고 있는 도서관리의 전산화를 이룩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교육원은 예산에 일정비율의 책구입 예산을 집행해 2개월에 2백권정도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좀더 다양한 종류의 책 구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지난 93년까지는 매년 실시해왔으나 재정적 문제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열지 못하고 있는 도서전시회도 여건이 닿는 대로 개최하고, 사설도서관협의회와 연계해 도서배가운동 등 지역독서문화 증진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바른신행 확대공간…"장서 다양화를"

정 반 야 심 〈삼선포교원 신도〉

몇년전부터 우리 절에도 조그마한 도서관이 생겼다. 규모면에서 보자면 일반도서관에 비해 보잘것 없지만 불 법 승 삼보가 충만한 사찰에서 부처님말씀이 가득 든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큰 행복이다.

어린이 불교만화에서부터 동화 수필 소설 경전에 이르기까지 불교관련서적을 한군데 모아 우리 불자들이 쉽게 불서를 접할 수 있게 해 책읽기 좋아하는 나는 우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사실 우리같이 집에만 있는 주부들은 시내에 있는 대형서점이나 조계사 근처 불교서점을 가지 않고는 동네 서점에서 원하는 불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 늘어난 도서대여점에도 불교 서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가끔 〈현대불교신문〉에서 안내하는 불서관련 기사를 보면 읽고 싶은 책이 있지만 빠듯한 가계부로서는 아쉬울 때가 많다.

이런 점에서 사찰도서관은 꼭 필요한것 같다. 같은 책을 서로 돌려보고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보다 불서를 많이 읽는 다른 불자들에게 자극도 받는다. 불서읽기는 스님법문을 재음미케 하고 바른 신행을 확대시켜 준다.

그러나 사찰에 비치돼 있는 책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불교만화나 동화가 너무 빈약해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전문가 조언

이 철 교 〈동국대 경주도서관 열람과장〉



정보화시대가 될수록 그에 걸맞는 도서관이 갖춰져야 하며 도서관들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나 각 자치단체가 이동문고 등을 마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각종 자료서비스에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각 사찰도 도서관(자료실)을 마련해 신도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찰(도심포교당 포함)은 종교활동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사찰 도서관은 없는 유명무실한 도서관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찰도서관도 체계적인 운영지침아래 다양한 종류의 책이 비치되고 계속 보완돼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사찰 예산에 일정비율의 책구입 예산 책정이 반드시

절마다 도서관 운영예산 책정해야
신도들 보시금 도서구입 통해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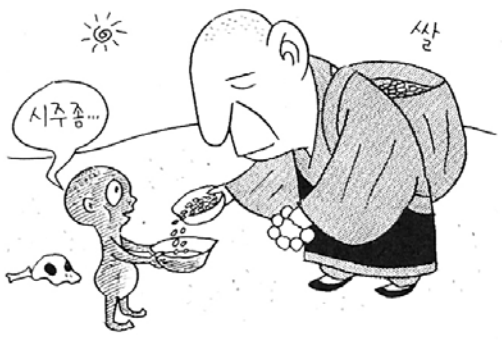
그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실 역할과 나아가 친목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도들의 교육·교양과 정보 및 지적 욕구 충족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폭넓은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책의 비치가 우선돼야 한다. 교양서, 사상서, 문학서적에서 최근의 정보서적과 잡지의 비치도 필요하다. 편역자도 모호한 법보시용 경전만이 잔뜩 꽂혀 있다거나 조잡하게 인쇄된 교리서나, 신간없이 낡은 책만 있는 도서관이라면 이용자가 없을 수 밖에 필요하다고 본다. 신도들이 내는 보시금을 신도들을 위한 회향으로써 책의 구입은 바람직하다. 더구나 각 사찰에서 매월 일정량의 책을 구입한다며 출판의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책과 거리가 있는 불자들도 사찰도서관을 드나들다 보면 불서와 자연스레 친해질 것이다.

사찰은 신도들이 와서 법문만 듣고 가는 엄숙한 장소가 아니다. 일반인들까지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삶의 여유와 지혜를 쌓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사찰도서관의 설립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 자비를 세상에…

목어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이살리로 가다가 이월강에 이르렀다.

"아난다야, 저기에 므슨 일이 있는지 가보아라."

아난다가 갔다 와서 부처님께 말했다.

"말, 범, 돼지, 개 등 각종 동물들의 머리가 백개나 달린 괴상한 물고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물고기가 있는 강 아래로 내려가서 물고기에게 물었다.

"네가 바로 가비리이냐." "그렇습니다."

"너를 가르친 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는가."

"아비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비구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부처님께 영문을 물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해 일러줄 터이니 잘 듣고 명심하여라. 옛날

궁금한 업의 무게

가섭 부처님이 계실때 어떤 바라문이 아들을 낳아 가비리라 하였다. 아이는 총명하여 그 또래에서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으나 출가사문 한테는 꼼짝을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임종을 하면서 사문들과는 절대 강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후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문이 되는 척 하여 법을 다 배운후 집으로 오라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사문이 되어 경율론을 모두 읽고 이치를 통달한 후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물었다. '이제는 이기겠느냐.' '학문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선정의 경지는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화가나서 사문과 논쟁을 하다 지게되면 욕설을 퍼붓고 윽박지르라고 말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명을 어길 수 없어 사문들과 논쟁하다 궁지에 몰리면 온갖 짐승을 끌어다대면서 미련한 축생만도 못하다고 욕설을 해댔다. 가비리는 그 과보로 지금 머리가 백개나 되는 물고기의 몸을 받게 되었느니라."

〈가비리백두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에누리 없는 인과와 함께 '현재의 자기 모습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라'고 일러준다.

'사과상자 속의 61억원'을 보면서 관련된 이들이 받을 업의 무게가 자못 궁금했다. 더불어 20만냥 값의 구슬에 눈이 먼 아내의 청에 못이겨 위증을 한 재판관이 눈·귀·혀·손발이 없는 두루뭉수리 몸을 받은 이야기도 떠올랐다.

23일 책의 날을 맞아 '거액비자금 은닉사건'에 연계된 이들에게 부처님의 인과법이 담긴 불서를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불효란…

부모를 거칠하고 묻는 말에 복손하고 눈을 부라리며 목성까지 퍼 붓는다. 부모의 헌벗고 배고픔을 모른체하여 저만 잘 입고 잘 먹으려고 한다. 이런 자들은 지옥이나 아귀, 혹은 축생의 세상에 떨어질 것이다.

〈부모은중경〉

현찬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

함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

금년 4월부터 발효되는 사북 고한 특수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조치로 사북 고한의 경제가 재도약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돌아보건데 사북 고한은 석탄을 생산하여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였으며 더구나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근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석탄생산을 해오신 노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입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한국의 주요한 에너지 원이 석유와 가스로 급격히 대체되면서 석탄의 생산은 감소되어 사북 고한의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북 고한 지역을 관광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지구의 선정은 대규모의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부지의 선정에서부터 설계전반에 걸쳐 엄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킬 많은 계획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만항지구 개발은 부지선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만항재는 내륙고원에 위치하여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항지구는 스키장으로 경사가 급하고 길이가 짧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골프장으로 개발되면 대규모 산림파괴는 필연적입니다.

또한 골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하여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수질 오염이 야기되어 만항재 아래에 위치하는 사북 고한 주민의 식생활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태백산맥의 함백산은 민족의 정기가 어려있는 영산입니다.

함백산의 정상에서 뻗은 정기는 사북 고한과 태백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는데 만약 만항지구가 개발되면 대규모 산림훼손은 물론 함백산 정기를 해쳐 사북 고한의 장래 기운을 쇠하게 만들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함백산 줄기에 자리잡은 정암사는 지금으로부터 1천3백년전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께서 창건하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교의 성지인 가운데서도 성지인 적멸보궁인 곳입니다.

정암사는 예로부터 수행과 기도도량으로 천만불자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왔으며 우리가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민족의 유산입니다.

현재 정암사에는 맑은 물에서만 사는 열목어의 자연보호 구역이자 천연 자연보호림 보존지역이며 보물 410호인 수마노탑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만약 만항지구가 개발되면 가까운 천년고찰 정암사의 주변환경이 황폐화됨은 물론 기도와 수행의 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는 정암사의 장래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2천만불자는 사북 고한의 발전을 위한 미래의 설계가 보다 더 적합한 부지에 선정되어 지역경제 건설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만항지구의 개발은 관광지구로 발전되기에는 문제가 많고, 아울러 사북 고한의 경제 재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 입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는 사북 고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의 시행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함백산 정암사 만항지구 개발은 관광지구로 선정되기로는 적당한 부지가 아니므로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한다.
2. 함백산은 천연 자연 보호림이며 개발은 대규모 산림 훼손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이 지역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반대한다.
3. 함백산은 자연 보호 어종인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 보호림이며 개발은 희귀어족인 열목어 멸종은 물론 정암사와 사북 고한의 수질오염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개발을 반대한다.
4. 이 지역 개발은 보물인 수마노탑의 보존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반대한다.
5. 이 지역 개발은 가까운 천년고찰인 정암사 적멸보궁의 수행과 기도등 종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개발을 반대한다.
6. 위의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함백산 정암사 만항지구 위락센타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위 원 장 김 현 해(오대산 월정사 주지)
부위원장 문 일 봉(천은사 주지) 〃 박 종 영(봉복사 주지)
간 사 이 원 행(월정사 총무) 〃 이 청 우(낙가사 주지)
대책위원 장 상 열(국형사 주지) 〃 이 혜 운(법왕사 주지)
〃 전 삼 지(구룡사 주지) 〃 이 현 우(정암사 주지)

불기2540년 4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월정사 교구종회 회원일동
오대산월정사 본말사 주지일동

"21세기 통일·화합 시대 열자"

이번 15대 국회는 21세기인 2000년 5월에 임기를 마친다. 눈부신 문화의 시대가 될 21세기를 여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어느 국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선진국 진입, 민주주의 가치의 보편화, 민족의 통일 등이 그 과제이다. 새로운 문화의 원동력은 자비와 화합이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불자의원들의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15대 국회 불자당선자들이 밝히는 포부

정·교분리 원칙…정각회 활성화

신한국 김명윤 당선자



신한국당 전국구후보 4번으로 금배지를 달게 되는 김명윤 당선자. 5대 민의원과 9대에 이어 18년만에 다시 국회로 진출하게 됐다.

"부처님 가피를 입은 불자로서 포교와 교세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내 종교가 소중한만큼 국가관이 확립된 가운데 불교를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국가도 불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불교계와 정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해에서 빚어진 일로 정부와 불교계 모두 자성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교와 정치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들 모두 서울 성북동 육화사의 신도인 김명윤 당선자는 이와함께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국회정각회가 의원들의 화합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정각선원 심신수양 도량 조성

신한국 권익현 당선자



"불자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로 인해 당선돼 감사드립니다. 15대 국회 의정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치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12·14대에 이어 4선의원이 된 권익현의원(국회정각회 회장). 국회에서도 "나는 불자요"라고 늘 밝히는 '뚝심불자'로 정평난 권의원은 부처님 가피를 잊지 않는다고 말한다. 15대 국회에서는 특히 불교관련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95년 4월 국회의사당에 정각선원을 개원한 것이 가장 의미있는 불사였다는 권의원은 "교리강좌, 정례법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 불자의원들의 심신수련의 도량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의원은 불교가 대중화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모든 불자들이 불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각종 신행·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근 기자〉

"불교관계 악법 시정 나설터"

국민회의 박찬주 당선자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관계 악법은 반드시 시정해야지요."

제15대 총선에서 전남 보성·화순지역으로 출마, 하여 첫 금배지를 달게된 박찬주(국민회의. 법명 혜륜) 당선자는 정계에서 떳떳한 불교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며 불교관계 문제를 개선하는데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불교학생회에 나가면서 광주 관음사의 윤주일법사에게 불법을 들었던 것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아침 저녁으로 1백배 정진을 하고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강남 구룡사법당을 찾는다.

구룡사 백고좌법회에 참석한 뒤 불교의 체험세계로 다가가게 됐다며 법화경과 유마경, 금강경 등 경전을 읽고 불자들의 신행담도 탐독하여 생활의 교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맑은정치·여성사회참여 주력

국민회의 추미애 당선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세탁소집 둘째딸이 한국의 썩은 정치를 세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초발심으로 앞으로 깨끗한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 최고의 스타로 부상한 추미애(국민회의·서울 광진을) 당선자는 첫 발심을 초지일관 하겠다며 당선소감을 밝혔다.

추 당선자는 "10년 6개월의 법조생활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입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학시절, 방학때마다 사찰에서 고시공부를 준비한 인연으로 불자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추씨는 동료들과 3천배를 마쳤을 때 '해냈다'는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자비넘치는 불국토 구현 최선

자민련 권수창 당선자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불자로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유일한 스님 당선자 권수창스님(자민련·경기 안양 만안갑·법명 법장)은 85년 12월 태고종 합동득도 5기로 출가했다.

"안양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됐다"는 권수창스님은 "현재의 불교가 문민정부에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내에 들어가면 불교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대때 출마하여 고배를 마셨던 권수창스님은 법륜사 조실 안덕암스님과 유동산스님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길로 출가했다. 안양에 인법당인 법안정사를 마련하고 10여년간 법사로 활동해왔다. 〈김원우 기자〉

불자의원에 바란다

교계 권익옹호 앞장서길

▲김동흔(중앙신도회준비위 대변인)=인명경시와 자연파괴로 인류가 처한 어려움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불교계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불자임을 당당히 밝혀라

▲이원일(전북불교회관 사무장)=불자의원이라면 확고한 신앙활동이 있었을 때 의원으로서도 제역할을 해낼 것이다. 불자 당선자들 스스로 신심을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귀와 눈 손발기대

▲이상번(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지역할거구도등 이러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겠다.

청소년에 관심과 용기를

▲조달현(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사무국장)=불교가 몇몇 인사에 의해 유린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올바른 교육정책 세워야

▲김형중(불교교육연합회 간사)=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중 특정종교 편향정책으로 불자들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불자선량들이 나서서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되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길 바란다.

15대국회 불자당선자 74명 바로잡습니다

지난호(74호) 1면 기사중 제15대 총선 불자의원 당선자명단은 각 당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사가 집계했었습니다. 그러나 집계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종교인이 도함되었기에 직접 전화로 확인해 최종 74명 명단을 다시 정리합니다.

▨신한국당 박법진(서울 양천갑) 이상현(서울 관악갑) 홍준표(서울 송파갑) 서정화(서울 용산) 이재오(서울 은평을) 정의화(부산 중·동구) 정재문(부산 진갑) 김정수(부산 진을) 강경식(부산 동래을) 한이헌(부산 북·강서을) 김운환(부산 해운대·기장갑) 김기재(부산 해운대·기장을) 서석재(부산 사하갑) 박종웅(부산 사하을) 김진재(부산 금정갑) 신상우(부산 사상을) 이강희(인천 남을) 김인영(수원 권선) 목요상(동두천 양주) 이택석(고양 일산) 안상수(과천 의왕) 전용원(구리) 이웅희(용인) 함종한(원주갑) 박우병(태백 정선) 이응선(홍천 횡성) 김기수(영월 평창) 신경식(청원) 강재섭(대구 서을) 김석원(대구 달성) 김윤환(구미을) 이상배(상주) 박헌기(영천) 김찬우(청송 영덕) 김광원(울진 봉화) 황낙주(창원을) 김태호(울산중) 하순봉(진주을) 허대범(진해) 김영일(김해) 나오연(양산) 권익현(산청 함양) 김호일(마산 합포) 양정규(북제주) 김명윤(전국구) 정재철(전국구) 〈46명〉

▨국민회의 추미애(광진을) 이윤수(성남 수정) 조성준(성남 중원) 최선영(부천 오정) 조찬형(남원) 박찬주(보성 화순) 배종무(무안) 임복진(광주 남) 박상규(전국구) 한영애(전국구) 〈10명〉

▨자민련 권수창(안양 만안) 이재창(파주) 박신원(오산 화성) 구천서(청주 상당) 변웅전(서산 태안) 이긍규(서천) 박준규(대구 중구) 김복동(대구 동갑) 박철언(대구 수성갑) 박구일(대구 수성을) 류종수(춘천을) 이인구(대전 대덕) 이양희(대전 동을) 〈13명〉

▨민주당 황규선(이천) 〈1명〉

▨무소속 이해봉(대구 달서을) 임진출(경주을) 황성균(사천) 김용갑(밀양)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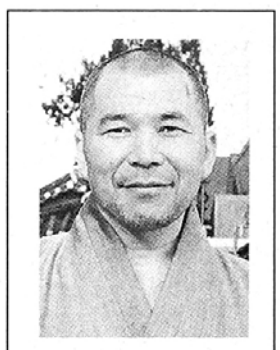
시 론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김청산을 외치던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했다. 경상도에서는 이기택 민주당 고문이 낙선했고, 전라도에서는 김원기 민주당 공동대표가 떨어졌다. 장을병씨가 강원도에서 당선되었지만, 그곳은 3김 정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 전라도나 충청남도에서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 당선자들의 선거구호는 3김 청산이 아니었다. 오히려 3김을 추켜세우면서 자신이 그들의 현재 또는 미래

망국적 지역정서 버려야

대통령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김 정서가 강한 곳에서 반3김을 주창하고 당선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3김정서가 없는 곳에서 반3김을 외치던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니, 그 소리들은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되었다.



석 지 명
〈첨계사 주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김영삼대통령이나 김대중총재가 없었다면, 이나마의 우리나라 민주화가 가능했을까. 유신정권하에서 양김의 민주화 투쟁이 얼마나 험난했는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벌일 때는 양김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서를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제 군인들이 갔다고 해서 김씨들이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는 속담을 따르는 것과 다를바 없다.

또 이런 면도 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있다.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억울해 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많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엄존하고 있다. 이 편견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센진'이라고 부르면서 품는 차별감과 유사한 것이다.

나는 노무현씨의 말을 인상깊게 기억한다. "한 지역인들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나 그 지역 사람들 자신의 공연한 피해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 김영삼씨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역차별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피력한 적이 있다. 또 김수환추기경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특정지역 출신의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지역주의, 지역감정, 지역차별 또는 지역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많이 개선되었고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풀이하자면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요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가 크게 작용된 것만은 너무도 확연하다. 이런 형편에서 듣기좋은 말로만 지역주의의 타파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맥없는 일인가.

그렇다면 지역주의를 이대로 방치하자는 말인가. 아니다. 쳐부수어야 한다. 단지 조심할 점이 있다. 지역주의를 반대하면서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한 또다른 세력주의가 있어서는 안된다. 잘나고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이 힘을 쓰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부수고자 한다면, 그 지역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뭉치는 것과, 지역사람들이 자기 방어나 자기 지역 인물을 키우기 위해서 뭉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또다른 지역주의 또는 그룹주의가 아니겠는가. 유식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돈많은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자기네끼리 권력을 잡고 세도를 부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지역사람들이 표를 모아서 힘을 결집하는 것을 어찌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4·11 총선'이 주는 가르침

반 지역주의(反地域主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 아역주의(反我域主義), 즉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나 영역을 중심으로 움츠리는 자세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제시해야 한다. 부처님의 무아(無我), 공(空) 또는 성구사상(性具思想)은 바로 이 반 아역주의를 가르치는 것이다. 혼자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아나 공이고,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고 행사하더라도 그 형의 근원이나 그 힘을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 본래부터 고스란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성구사상이다. 무아나 성구의 자세에서만, 나, 이웃, 나라, 세계가 걸림이 없이 어우러지는 평화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김원기 민주당 공동대표가 담배연기를 뿜으며 지역주의를 자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는 그에게 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기회에 자신을 완전히 지울 수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넓은 세계가 그의 수중에 들게 될 것이라고 귀띔해 주고 싶다.

고객감동!!

고객의사랑,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G전자

신성시스템이 경진 C&C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Computer & Communications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16-9 전자랜드 신관 3F 7호
T : 715-8855 (대표), 712-0544

LG 노트북
•Sound카드및 스피커 내장으로 노트북에서도 멀티미디어 구현
•14,400bps초고속 FAX/Data Modem내장
•세계최초 적외선 방식의 무선 Trackball장착
•착탈식HDD.LCD.CPU의 사용으로 손쉬운 Upgrade
• PCMCIA Type Ⅰ, Ⅱ 지원



486DX2-75MHZ(GN40C7587)
* 기본메모리 8MB * HDD 340MB
* 9.5" STN COLOR LCD
* PCMCIA SLOT 지원 (TYPE Ⅱ or TYPE Ⅱ)
* 무선 Trackball내장 FAX/MODEM(14,400bps)내장



486DX4-100MHZ(GN40C0099)
* 기본메모리 8MB * HDD 540MB
* 10.4" TFT COLOR LCD
* PCMCIA SLOT 지원 (TYPE Ⅱ or TYPE Ⅱ)
* 무선 Trackball내장 FAX/MODEM(14,400bps)내장

심포니 Tower
• 기본사양
• 기본메모리 8MB • 캐쉬메모리 256KB • 비디오메모리 2MB • HDD 1.28GB • FDD 3.5"
• I/O-PORT 2SIO, 1PIO • 사운드 카드 PMC방식의 16Bit 사운드카드
• 기본제공 S/W 한글윈도우 95, V3백신, 원격서비스 프로그램

Pentium-166MHZ(GT53H166C)	Pentium-133MHZ(GT53H136C)
· CD-ROM드라이브 6배속 · 확장SLOT 3P,4I · Fax/Modem내장 · S/W MPEG제공 · 비전팩(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 CD-ROM드라이브 6배속 · 확장SLOT 3P,4I · Fax/Modem내장 · S/W MPEG제공 · 비전팩(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Pentium-100MHZ(GT53H005C)	**Pentium-75MHZ(GT53H755C)**
· CD-ROM드라이브 4배속 · 확장SLOT PCI3, ISA4 · Fax/Modem내장 · S/W MPEG제공 · 비전팩(OPTION) · 나우누리 1개월 무료이용권 · 인터넷 1개월 무료이용권	· CD-ROM드라이브 4배속 · 확장SLOT PCI3, ISA4 · 기본타이틀 4종 제공 · 비전팩(O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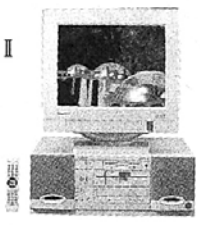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멀티미디어 기능
LG심포니Ⅱ

홈 PC



Pentium100MHZ(GS50H008CX)
■HDD 1.28KB
■CD-ROM 드라이브 4배속 ENHANCED IDE방식
■스피커 5와트(채널당)고출력 스피커 내장
■리모콘 미우스기능,노래방신곡기능, TV 비디오 CD조정기능(비전팩적용시)

심포니 Ⅱ



Pentium166MHZ(GH53P169EF)
■기본메모리 16MB ■비디오메모리 2MB
■HDD 2GB
■CD-ROM 드라이브 6배속 ENHANCED IDE방식
■사운드 카드 PCM방식의 16bit사운드 카드
■스피커 10와트(채널당)고출력 스피커 내장 (오디오형 스피커)
■리모콘 미우스기능,노래방신곡기능, TV 비디오 CD조정기능(비전팩적용시)
■Fax/Modem내장
■기본타이틀 9종제공 ■비전팩 (option)

모니터



NEW
15" '95일본GD마크획득 '95헬로우PC선정최우수제품 15S
■최대해상도 1280×1024ni(MAC호환)
■수평/수직주파수 30~65KHz/50~110Hz
■스피커 일체형 하이터치 디자인
■PLUG & PLAY기능지원 (Windows '95)

레이저프린트



Laserstar660J+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
■300DPI고해상도 개인용 LBP
■한글윈도우 및 아래아한글에서 6PPM폐속출력
■GDI(Graphic Device interface)기술을 통한 Windows환경에서 획기적인 프린팅 속도제공

법회 안내

직지사 수성구포교원
(053)8754-8629

정기법회 매주 목 오전10시30분
직지불교대학(중급반)
목 오후7시30분
직지불교대학(초급반)
수 오후7시30분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직지사 서구포교원
(053)557-3599

정기법회 매주 금 오전10시30분
저녁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수타사(0366)33-6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석왕사(0361)51-5040

일본신도법회 매월 1, 15일(음)
오전10시30분
강원불교대학강좌 매주 화, 목
오전10시30분

법림사(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미타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철야정진 매월 첫째 토 저녁8시

천명사(062)234-6203

정기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청수사(02)816-129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자성신공불사 매주 목 오후6시

안정사(02)292-2439

신중기도 매월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영각사(0345)498-7700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법회 매주 수 오전11시
아신기사회법회 둘째 화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협 창립 2돌행사

(사)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강영훈) 창립 2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3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복지재단 현중스님(기획실장), 이수성 국무총리, 김우석 내무부장관 등 각계인사와 52개 단체대표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부름의 전화등 자원봉사활동에 공이 큰 6개단체에 내무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사)청교련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지난 14일 도선사에서 창립 30주년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현성스님(청교련 회장) 송석구총장(동국대) 유주형씨(청소년연맹 사무총장)를 비롯 종립학교장 학생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행산스님(영산법화사)을 비롯 11명이 청소년 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표창장을 받았다.



동림동문회 동림인상 수상자 시상식

동림동문회(회장 성웅)는 지난 15일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정각원에서 96년도 정기총회 및 동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런 동림인상 수상자로는 학술연구부문에 오원스님(칠보사) 사회봉사 정진스님(보문사) 포교 운월스님(불교여래원) 동림회 공로자암스님(불국사)등이 선정돼 상패를 수여받았다.



'동국의 종' 제막식 및 타종식

동국대학교 개교 90주년과 경주캠퍼스 건립 18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동국의 종' 제막식 및 타종식이 지난 17일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녹원 동국학원 이사장을 비롯 송석구 총장, 이도업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이원식 경주시장등 사부대중 3백50여명이 참석했다.

교차로

대전 청소년 봉사센터에 기금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7일 총무원에서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타(소장 종실)에 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베트남 방문위해 출국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베트남 도이 무오이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지난 16일부터 6일간 베트남을 방문키위해 불국사주지 설조스님, 종단 협부회장 지하스님과 함께 출국했다.

직지사 행자교육서 법문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 모임 회주)은 지난 12일 직지사에서 열린 제10기 행자교육서 '출가 수행자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평불협 창립5돌 법회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은 오는 26일 오후 3시 평불협 사무실에서 평불협 5돌 창립기념 및 이전법회를 봉행한다.

초파일 봉축 경로잔치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5월 10일 오전10시 불우노인 3백명을 초대 부처님 오신날·봉축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자원봉사자 교육·야유회

영담스님(덕유사회복지관 관장)은 지난 14일 복지관과 한강고수부지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돕는…' 책자 배포

현중스님(조계종 복지재단 기획실장)은 지난 20일 남북한 장애인걷기 운동본부에서 개최한 남북한 장애인 복지대회 및 제2회 장애인 마라톤대회에 참가, 〈장애인을 돕는 기술과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이라는 소책자를 복지재단 홍보용으로 배포했다.

'장애인 돕기 춤제전' 참가



자은스님(하와이 불은사 주지)은 지난 19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 '96 장애인 돕기 한민족 남성 춤제전에 참가, 구도정신을 표현한 창작무 '참회'를 선보였다.

미얀마 불교유적지 답사

선암스님(사진작가·봉원사)은 지난 15일 미얀마 일대 불교 유적지로 사진기행을 떠났다.

서산마애불·수덕사 답사



이근후박사(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는 오는 27·28일 1박2일간 서산 마애삼존불과 수덕사로 문화유산답사를 갖는다. (02)760-5138

'도덕은 가정에서' 강연회

신상우씨((사)한국도덕운동협회 회장)는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도덕예절교육은 가정에서'라는 주제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연꽃 케익' 기술세미나

정판수씨(대한불과회장)는 오는 26일 오후2시 김상엽제과기술학원에서 '연꽃케익 및 빵과자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02)538-8436

게시판

▲영어강사 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랩실에서 근무할 영어회화 능통자를 구한다. (02)852-0525

▲구도법회=조계사대승불자회는 오는 27일 불국사, 석굴암, 기린사로 구도법회를 떠난다. 27일 오후 3시 조계사 앞 출발. (02)736-4848

▲일일찻집=불교인권위원회가 오는 5월4일 창립6주년 기념으로 조계사 내 산중다원에서 일일찻집을 연다. (02)734-6401

▲수족침 강좌=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5월7일 개강하는 수족침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02)421-6077

▲불탄 카드보내기 운동=조계사청년회(회장 남도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탄 카드 보내기운동을 펼친다. 수익금은 청년회 수련장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02)278-9395

▲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오는 28일 제22차 불교문화유적답사를 실시한다. 답사지는 부여 무량사, 익산 숭림사, 보령 성주사지이며 오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에서 출발. (062)228-9098

▲불교입문자교육=부산불교교육원은 제18기 불교입문자교육 수강생 모집. 25일 개강한다. (051)466-4080

▲북한산 유적답사=한국불교기자협회는 28일 북한산 중흥사지 일대에서 불교유적답사를 실시한다.

화촉 이한규씨(주간불교신문 업무부장)는 28일(일) 정오 동국대 정각원에서 김경미양과 화촉을 밝힌다.

여태동(불교신문)·김세영(한국불교신문)기자는 28일 오전11시 대구 남구청앞 보훈회관에서 화촉을 밝힌다.

"한일 천태종은 법형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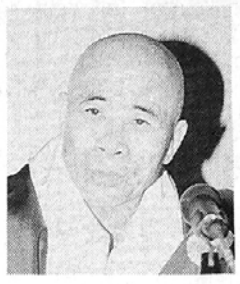
첫 방한한 日천태종 스기다니·고바야시 스님

"한·일 천태종은 법형제입니다. 일본에 불법을 전해준 한국을 첫 방문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우호와 세계평화를 위한 새물교를 텄다고 봅니다."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스기다니 기쥰스님과 총본산 히예산 연력사 집행 고바야시 류조스님이 지난 15일 내한하여 17일까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와 부산 삼광사를 방문했다. '79년 시작된 한·일 천태종 친선교류이후 일본측 두 스님의 공식방문은 처음이다.



◇ 스기다니 스님



◇ 고바야시 스님

구인사·삼광사 방문 … "살아있는 불교 배우고싶어"

이번 방문에 대해 스기다니 기쥰스님과 고바야시 류조스님은 "일본 천태종의 첫 공식방문은 천태 지자대사 원적 1천4백년주년을 맞아 천태종사에 길이남을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총본산 구인사를 참배하고 종정 도용스님을 예방하여 특별접견까지 받게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두스님은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불교가 전승된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 천태종은 고려때 중국에 천태종을 전한 체관스님의 〈천태사교의〉를 입문서로 널리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미에서 한·중·일 천태종은 함께 천태교의를 펼치는 차원을 넘어 법형제로서 더 한층 친밀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형님격인 한국불교를 따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두스님은 기도도량으로 총본산 구인사와 도심속의 전통사격인 부산 삼광사를 보고 한국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으며 살아있는 불교를 배우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번에 방한한 스기다니 스님과 고바야시스님은 일본 천태종의 종무총장(총무원장)과 총본산 집행(주지)이다. 고바야시 스님은 한·일 불교교류대회 일본대표단 단장으로 활동중이다.

김원우 기자

"전세계 기아·질병 어린이 구호"

유니세프 불교인클럽 초대회장 제원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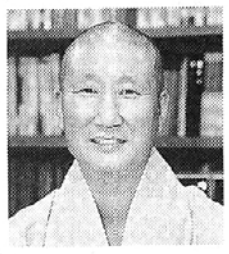
'하루에 3만5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웃고 함께 슬퍼하는 삶으로 전환키 위해 불교인클럽을 창립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존보호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 기구인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한국위원회 불교인클럽 초대회장 제원스님(길음복지관장).

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불법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미얀마답사등 창립준비를 해왔다.

불교인 클럽은 첫사업으로 오는 28일 남산순환로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사랑의 걷기대회를 실시한다.

제원스님은 "후원금 5천원으로 33명의 어린이에게 홍역·결핵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불교인클럽은 앞으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등 동남아 불교국가를 비롯 전세계 어린이들의 구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정규대 승격·학사이전 적극 후원"

제5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무상 스님

"재학생 교직원 전 종도와 동문간의 유기적인 관계 모색이 학사 이전불사를 원만히 이끄는 첩경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종단과 이사장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지난 14일 개최된 중앙승가대학 총동문모임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무상스님(3기, 봉은사 주지)은 중앙승가대학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좁히고, 정규대 승격 및 학사이전을 하루 속히 이뤄야겠다는 전 종도의 확고한 의지 결속에 있다고 피력했다.

김포-안성 학사이전부지 선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로운 동문회장에 선출된 무상스님은 "이제는 동문이 후배들을 선도하고, 후원회로써의 역할분담에 적극 나설 때임을 알려 동문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생각입니다"라며 안정된 학사운영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동문으로서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불교는 인생문제 해결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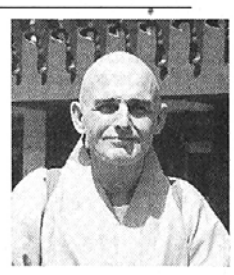
외국인으로 행자교육원 수료 미륵스님

"쉴 틈이라고는 조금도 없을 정도로 빽빽한 일정이었습니다."

제10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미륵스님(49세 속명 William Bevins 해인사)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첫소감을 피력했다.

3천배 하기가 가장 힘들었다는 스님은 나이는 속일수없다며 환하게 웃었다. 토마스제퍼슨대학을 졸업하고 법률상담 침술 컴퓨터관련 직종에 근무한 스님은 포교차 미국을 방문했던 돈광스님(함양군 상연대 선원장)의 법문에 매료돼 불법과 인연을 맺었다.

"불교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입니다. 현대 물리학이나 심리학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불교가 가장 심오하다고 판단되어 늦깎이 출가를 결심했다는 스님은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본질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월남전에도 참전했던 스님은 현대 미국인은 정서적인 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직지사=이윤호 기자



태고종 봉원불교교양대학 개강식

태고종 봉원불교교양대학(학장 대운)은 지난 18일 봉원사 대강당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초대학장 대운스님 전 총무원부원장 혜륜스님 봉원사 교육원장 만춘스님과 신입생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대운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워 불법의 소중함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개교17돌 기념법회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 제17주년 개교기념법회가 지난 15일 정진관에서 있었다.

홍선, 종범스님을 비롯한 교직자, 학인 및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주영문씨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제2회 승가학술 문예상 시상식도 함께 거행됐다. △논문분문 대상 현행스님(불교3) △문예부문 대상 혜일스님(불교2)등 8명.

책방 여시아문과 함께라면 이 언덕(此岸)이 곧 저 언덕(彼岸)

회원이 되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가입 방법
- 전화, 팩스로 가입 신청
- 본점 방문시 회원 신청(본점에 신청서 비치)
- 가입비는 무료

회원 특전
- 매월 책방 여시아문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 관련 서적 신간 안내, 서평, 기타 서지 정보)
- 현대불교신문사 및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한하여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대불고신문사, 책방 여시아문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해 드립니다.
- 희귀본이나 절판본, 기타 불교 서적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원하실 경우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통신판매, 이렇게 편리합니다

주문 방법
- 전화나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주문하시면
-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
- 국내, 외를 막론하고 원하시는 곳 어디든지 찾아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찾아오시려면


※ 책방 여시아문에서도 카드 결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획하나 점하나를 원본대로"

산문밖의 선禪

금속활자匠 오국진 씨



선조들의 인쇄술 재현엔 찰나의 방심도 금물
'직지심경' '다라니경' 등 복원하며 부동심 배워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사이 칼과 글이 붓이 된다. 그것을 쥔 팔도 하나가 된다. 결국에는 목판과 칼과 글,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시간속에서 진행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속의 만물이 저절로 제 궤도(軌道)를 도는 것처럼.

중요 무형문화재 101호

서각가이자 금속활자장인 오국진씨(52·국가중요무형문화재 101호)의 하루 일과는 '우리 고(古)인쇄문화의 복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가 15여년간 작업해 온 동립서관(東林書舘)에 들어서면 그윽한 묵향(墨香)과 함께 정성스레 작업한 서각(書刻)작품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 2월 문체부로부터 우리나라 인쇄문화전통의 자랑인 금속활자 인쇄술의 보유자로 인정된 오씨는 세계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첫장의 복원을 비롯, 고려에서 조선초기 사이의 금속활자 제작방법을 실증적으로 재현해 내고 있는 유일한 장인(匠人)이다.

충청도 선비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 조부에게 붓잡는 법을 배우고 뒤에 우송(又松) 이상복 선생에게 서예를 배운 것이 계기가 돼 그는 서예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글씨만 쓰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는 금석학의 영역에 발을 내디딘다. 금석학의 선미(禪味)를 갈수록 체득한 그는 좀더 깊이있는 공부를 위해 친척인 오옥진씨에게 본격적으로 서각을 배우게 됐다.

대대로 불교집안에서 금석학을 통한 선대(先代)의 인쇄문화유산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는 86년 현존하는 세계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복원에 성공한다.

〈직지심체요절〉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에 백운(白雲)화상이 청주 흥덕사(興德寺)에서 찍어낸 인쇄본으로 현재 한권이 프랑스박물관에 보관돼 있으며, '세계 도서의 해'인 지난 72년,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인된 바 있다. 임진왜란 때 소실 매몰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던 흥덕사지는 85년 청주시 운천동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던중 '흥덕사'란 이름의 청동금구(金具)가 발견됨으로써 절터로 확인됐던 것.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태어나 살아온 고장에서 이처럼 뜻깊은 사적지가 발굴됐으나 영인본(影印本)조차 국내에 없는 것을 알고 이의 복원작업에 착수한다. 그는 우선 청주대박물관을 찾아 〈직지심체요절〉의 복사본을 구해 배나무에 판각(板刻)하기 시작했다.

쉽지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시작해보니 획 하나, 점 하나를 원본대로 파내는 작업은 어렵기만 했다. 그야말로 일초라도 방심할 수 없는 사경(寫經) 정진의 과정처럼 정성과 부동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수십년동안 수천사람의 작업이었던 그 방대한 팔만대장경 판각이 마치 한 사람의 글씨인양 고른 서체와 크기로 변함없는 부동심을 보이고 있듯 그의 서체도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 판각을 하기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치 불모(佛母)처럼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옛 스님들의 얼과 다름이 없다.

이같은 뼈를 깎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2개월여만에 첫장과 끝장의 복원을 끝내고 이에 자신감을 얻어 밀랍과 청동을 이용, 금속활자로 된 완벽한 원판을 복원해 낼 수 있었다. 크지 않은 조각칼과 한뼘의 나무판들에 새겨넣은 부동심(不動心)의 흔적들이 선조들의 혼과 맞닿아 1천2백년 세월을 우리 앞에 다가서게 한 것이다.

이같은 성취에 힘을 얻어 그는 90년 세계최초의 목판 인쇄본인 〈다라니경〉의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770) 보다 20년 이상 앞섰음이 증명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오랜 세월 부식되고 심하게 훼손돼 있어서 일반에게는 공개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파손이 더 진행되기 전에 원판을 복원해 후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작업에 들어갔다. 발견 당시 이미 제목과 본문 등 1천5백여자가 거의 손상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까지 철저한 고증에 의해 집자(集字)해 낼 수 있었다. 90년 10월부터 꼬박 1년3개월 동안 새긴 글자는 모두 12판에 5천3백36글자.

훼손된 부분까지 되살려

"〈다라니경〉의 글자는 고졸(古拙)함이 특징입니다. 기교는 없지만 예스럽고 소박한 멋이 붓 끝에서 살아 넘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다라니경〉의 판각은 그래서 도의(刀意)보다는 필의(筆意)에 역점을 두고 각자(刻字)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돌배나무판에 원문의 복사본을 뒤집어 붙인 뒤 기름을 먹이고 한지를 나무판에 대면 글자만 나타난다. 이것을 칼과 글, 망치로 섬세하게 새겨나가는 것이 그의 작업과정이다.

"손톱만한 글자들을 뒤집혀진 상태에서 새긴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옛날 그대로의 획과 필선들을, 훼손된 부분까지 꼭같이 만들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어렵기만 했습니다."

매일 작업대에 앉아 확대경을 들여다보며 글씨를 새겨 나가는 작업. 덕분에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새가 없었고 이때문에 나빠진 시력과 구부정한 어깨는 훈장처럼 남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라니경〉의 복원을 끝내자마자 다시 〈월인천강지곡〉의 복원과 조선초의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의 복원에 힘을 써 왔다.

글씨는 직접 써야 한다. 오랜 세월 서예가로서 고집스럽게 매달려 온 붓글씨, 여기에다 직접 새겨보는 서각(書刻)체험, 흔들림 없는 원력(願力)의 힘,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돈과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 그의 생활, 그래도 그의 작업은 쉬는 날이 없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은 한가집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김재경 기자

'무당절'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문 무당집에 귀자 표지가 붙은 것을 보고 늘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찰 중에도 무당짓을 하는 이른바 무당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당절에 신도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짐작해보면 스님들의 말씀은 너무 형이상학적인 반면 무당절에선 운명감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원익·경남 하동 형천면〉

답 사람이 귀신 짓을 하면 귀신이 있는 것이고 귀신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귀신은 없는 것입니다. 처사께서는 운명감정 따위가 실생활에 필요한 요소라 하셨는데 그걸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무당절에 사람이 모이겠지요. 그러나 운명따위가 다 뭐냐 하신다면 무당절은 사라질 것입니다.

흔히들 운명을 말합니다만 삼세가 공했는데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지요. 오직 지금 여기 찰나의 오늘이 있을 뿐이고 과거생에 내가 살면서 쌓은 업식도 다 지금 이 순간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사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짊어진 것을 뚱땅 내려놓으신다면 아무 것도 없게 되지요? 짊어지고 있으면 운명 운운 하겠지만 놓고 가신다면 운명은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어제 녹음해 둔 테잎에 오늘 새 것을 녹음하면 어제 것은 이미 없고 오늘 것만 기록이 되겠지요. 그냥 지우기만 하면 다시 공테잎이 될테구요. 공테잎이 되었다면 어제의 녹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 것을 녹음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지우지 않고 옛 노래만 틀고 있다면 그 테잎은 언제나 흘러간 노래만 나오겠지요. 그렇게되면 운명은 있다 라는 소리를 하게 될 것이고 운명감정 따위에 솔깃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성제, 12연기법을 가르치실 때 이미 운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조건 놓고 살아라, 일체를 주인공 몫으로 돌려 맡기고 살라 하는 것은 이미 녹음된 것을 지우고 공테잎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공테잎이라야 진여자성의 소리가 나올게 아닙니까?

스님들께서 형이상학적인 말씀만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처사님의 분별일 수 있습니다. 비록 몰리가 터지지 못한 분이라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생각부터 놓고 가십시요.

어떻게 '죽어야' 공부가 되는지

문 저는 가정을 가진 주부입니다. 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이 공부를 하려거든 죽어야 한다! 첫째도 죽어야 하고 둘째도 죽어야 하고 셋째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죽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 하는데 죽으라는 말씀이 에고(ego)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짐작하면서도 그게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형주·서울 강동구 명일동〉

답 죽는게 그렇게 두렵던가요? 이게 말입니다. 난 죽고싶다, 죽고싶다 하는 분이 더 죽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 죽으라는게 아니지요. 모든 것은 고정되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공하다'고 했고 그래서 '나'라는 관념을 몽땅 놓는다면, 놓는다는 그 의식까지도 말입니다만 그렇게 놓는다면 사랑할 건 사랑하고 발전시킬 건 시켜가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해서 완전히 나와 나가 계합할 때까지 놓고가라, 그것이 첫째 내가 죽고 둘째 더불어 죽고 일체와 둘아니게 나투도록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않고 나를 볼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번 죽는 도리는 나를 버려 나를 얻는 소식이고 두번째 죽는 도리는 나와 더불어 일체를 버려서 일체를 얻는 소식이며 세번째 죽는 도리는 일체와 더불어 나투는 소식입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소식을 아신다면 일체가 나와 동등하여 둘이 아니고, 우주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도량이요 만물만생의 아픔이 내 아픔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끝마다 일체를 놓고 말기라, 주인공 자리에 몰락 놓고가라 하는 것은 바로 죽고 또 죽어라, 이쯤하면 됐겠지 하는 것도 없이 놓고 또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으로 복잡하고 말많고 탈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일히 사량분별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사신다면 어느 천년에 나를 밝히고 불법의 맛을 알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신 것은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또 죽는 한마음의 인생살이에는 고가 없습니다. 고는 사라집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법으로써 나도 건지고 일체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통밖으로 벗어나 통을 굴릴 수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싸움도 말릴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공-참 자기를 믿고 관념의 나로서는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편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베어있는
쉬운 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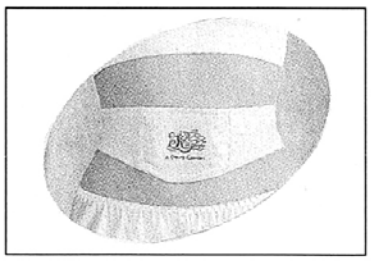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범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李東燁역·釋能嘉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에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李東燁역·釋能嘉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편저
4. 육묘법문 李東燁역·釋能嘉감수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 야 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인터넷은 '불교학술정보 산실'

'불교실천윤리' '佛門' 등 전자잡지 활동 눈길

세계종교학자 논문·경전등 열람 가능
온라인 전자회의에 독자 직접 참여도

인터넷 상에 불교관련 학술지 출판을 통한 불교학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속속 출간되고 있는 인터넷 불교 학술지 최근호에는 불교의 학술적인 탐구를 통해 사회실천윤리로써 재평가하려는 미주·유럽 등 서구인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 또한 각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범세계적인 종교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원화된 불교의 권위있는 의견이 수록됐다는 특징도 있다.

ㅇ들 학술지 가운데에는 〈불교실천윤리〉(Journal of Buddhist Ethics), 〈트리사이클 협〉(Tricycle hub), 〈탄트라 불교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Tantric Studies), 〈佛門〉(Buddhist Door) 등이 주목된다. 이중에서 〈불고실천윤리〉와 〈탄트라 불교학회지〉는 지난해 호주국립대학에서 평가하는 사회과학 분야 정보 평가를 통해 최우수 잡지로 선정될 만큼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불교실천윤리〉(편집장·프리비쉬) 최근호에는 데이비드 체플 교수(하와이대, 미국)의 '대승불교의 차별화된 윤리', 찰스 흄리시 교수(하버드대, 미국)의 '원시불교 윤리의 특정설(特定說)' 등을 비롯 4개 소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불교실천윤리〉 자에는 지역을 망라한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회의'도 개최해 관련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현재 '서구불교의 윤리'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온라인 전자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천자 미만의 분량으로 소논문을 작성 오는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소논문은 〈불교실천윤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게재된다.

〈탄트라 불교학회지〉 역시 주목받는 학술지로 최근호에는 티벳불교의 종교적인 '춤'(禮典舞)을 다룬 켄티웰 교수(웨일즈대, 영국)의 논문 〈구루의 팔면무(八面舞)〉가 특히 눈길을 끈다. 〈탄트라 불교학회지〉는 게질리교수(편집장, 하버드대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발간된다. 탄트라 불교를 주 연구과제로 삼는 학회지로 불교언어철학, 미학, 경전 등을 주로 수록하고 있다. 또한 탄트라 불교와 관련해 의학·화학·점성학·역사 등의 논문도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외에도 〈트리사이클 협〉 최근호를 통해 티벳사원에서 2주 동안 명상을 한 영화배우 리차드기어 인터뷰를 비롯 작가 로렌스 록우드의 자서전적 수필 '병사의 고백'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캐나다 뱅쿠버에서 발간되는 웹간 〈佛門〉에는 부처님 일대기와 '인연법'이 잘 설명되어 있다. 특히 〈佛門〉은 여성불자 및 비구니를 위한 읽을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
〈불교실천윤리〉 http://www.psu.edu/jbe/jbe.html
〈탄트라불교학회지〉 http://www.shore.net/~india/ijts/
〈트리사이클 협〉 http://www.tricycle.com/
〈佛門〉 http://www.tunlinkok.ca/

오종욱 기자



◇인터넷상에 불교학술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불교학술지 최근호 출간이 활발해졌다. 사진 위는 〈탄트라불교학회지〉, 가운데는 〈불교실천윤리〉, 아래는 〈트리사이클협〉誌의 홈페이지.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동화사

강생원

莫逐有緣勿住空忍
(막축유연물주공인)
一種平懷泯能自盡
(일종평회민능자진)
止動歸止止更彌動
(지동귀지지갱미근)
一種不通兩處失功
(일종불통양처실공)

하나를 모르면 양변을 다 잃는다

세간의 인연을 좇지도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마라

한가지만 그대로 지니면 헛것은 스스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쉬어서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움직임 되나니

하나에 통달하지 못하면 양쪽에 빠져 모두 잃으리라.

해설 동화사 강생원에 걸린 이 주련은 중국 선종의 3조 승찬(僧璨)의 〈신심명(信心銘)〉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이다. 잘 알려지다시피 2조 혜가로부터 이어진 승찬의 법맥은 4조 도신(道信)에 전해졌다. 승찬스님의 〈신심명〉은 처음 발심할 때부터 구경성불을 할 때까지 수행인이 가져야 할 신심을 4자씩의 싯구 146구로 응집한 것이다.

원문에는 앞의 3귀절과 네번째 귀절 사이에 '유체양변영지일종(唯滯兩邊 寧知一種,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겠는가)'라는 구절이 더 있다. 아무튼 이 주련의 내용은 수행자가 두 끝에 치우쳐 돌다 얻지 못함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끝이란 첫 구절의 세간 인연과 출세간의 법을 의미한다.

〈신심명〉은 많은 스님과 학자들이 해설하고 각종 강좌에서도 필수과목처럼 사용되고 있다. 퇴옹당 성철스님의 해설서를 기준으로 이 주련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있음의 인연'이란 세간법을 의미하는데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일이란 뜻이다. '공인'이란 것은 반대로 출세간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무상대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간의 인연과 출세간의 법도 버리고 있음과 없음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두 경계를 다 버리고 나면 중도(一種)로 들게 되어 그곳에서 만법이 원만구족하여 저절로 다 한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고요함으로 돌아간다는 뜻. 그러나 움직임은 그치려 할수록 더해지는 것이다. 고요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크게 움직이므로 그걸 그쳐 고요로 들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망상을 덜려는 생각도 덜지 않으려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일종에 통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일종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자성청정심' '진여자성'의 의미다. 그러니까 일종에 통달하지 않고는 양쪽의 공덕을 모두 잃는다고 경책하는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1689년에 제작된 석축기.

미황사 最古유물은 '석축기'

황호균씨 조사 응진당 불상명문도 새로 발견

전남 미황사 유물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적비가 아니라 '석축기'이며, 응진당의 불상 명패에 새겨진 명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다.

황호균씨(전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최근 미황사 정밀지표조사 결과를 모아 남도불교문화연구회가 발간한 '불교문화연구' 제5집 '미황사의 유적·유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씨는 미황사의 유적·유물중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석축기(1689년), 응진당 불상 명패(1722년), 괘불(1727년), 대웅보전 상량문(1754년), 구 후불탱화·칠성탱화·신중탱화·독성탱화·산신탱화(1943년), 신 후불탱화(1993년)이며, 따라서 응진당 불상 명패의 명문은 그동안 응진당의 조각상은 물론 대웅보전이나 명부전의 건물과 여러 조각상들의 조성연대를 막연히 조선 후기라고 추측해 온 것과는 다른 1722년에서부터 1754년(상량문) 사이인 18세기 전반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1842년 이후 미황사의 탑비나 부도 등 그 밖의 어떤 유적이나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특기할 만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황사가 소재한 해남 서정리 주민들이 1백50년전에 있었다고 증언한 '군고(軍鼓)폐사 설화'—미황사 스님들이 중창불사를 위해 군고를 편성해 청산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다가 풍랑을 만나 파선돼 죽었다는 내용—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불교문화연구'에는 미황사의 역사·승려 행장고·건축·부도·탑·설화 등 6편의 지표조사결과가 실려있다. 〈우〉

"능엄경 선사상성리학 수용 토대"

보조사상세미나서 발표 이제현 정몽주 이색등 선불교에 심취

간화선 이전 '反聞聞性' 수행 유행
듣는 성품 관조…염불선으로 발전

간화선(看話禪)이 유행하기 이전의 禪은 이자현의 '반문문성(反聞聞性)'이며, 능엄경은 고려시대 사대부들의 성리학 수용을 의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헌씨(원광대 강사)는 오는 27일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될 논문 '이자현의 능엄선 연구'에서 간화선이 성행하기 이전의 禪은 고려시대 유학자 이자현의 '반문문성(反聞聞性)'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고려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불교에서만 그 정통성을 유지해오고 능엄경 간화선은 당시 고려선종계에서 능엄경을 통한 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대부들에 의해 널리 퍼졌으며, 따라서 간화선이 성행하기 이전에도 분명 사상적 기반이 있었을 것이라는데 착안한 결과 이자현의 선사상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의 반문문성이란 소리에 집중하는 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듣는 성품을 돌이켜 관조하는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선수행(禪修行)을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는 우선 외부의 소리(바람, 물소리 등)를 듣고 다음으로 내면의 소리를 들은 후 듣는 소리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치는 것으로, 이것이 후일 염불선의 형태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세미나의 또다른 발제자인 조명제씨(부산대 강사)는 '14세기 고려사상계의 능엄경 성행과 그 사상적 성격'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사대부들은 선사상에 대단히 심취했던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특히 능엄경을 통해 선사상에 대한 이해기반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성리학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려후기 이래로 능엄경은 사상계를 풍미하면서 선승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반 문인층까지 폭넓게 수용됐으며, 여말 임제선의 수용기에 이르기까지 간화선이 성행할 때 사상적 영향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제현(李齊賢, 1287~1367) 이후 성리학을 크게 일으킨 이색(1328~1396)이래 이숭인, 정몽주, 권근 등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이 능엄경을 통해 불교의 사상체계를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또 종래 법통설에서 중시됐던 태고보우 중심의 흐름보다는 오히려 나옹과 그의 문도들이 당시 선종계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강조한 조씨는 이들이 수행과정에서 일정한 선적 깨달음의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이 능엄경이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능엄경은 차츰 선종의 대표적인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확립돼 선사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경전으로 자리잡게 됐으며, 따라서 점차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당시 주자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성철禪사상연구원' 5월말 개원

성철스님문도회가 운영하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스님)은 5월말 '성철禪사상연구원' 사무실을 공식 개원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지난 3월 원장에 목정배 교수(동국대), 연학실장에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 등 6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학술연구비 지원 및 불경번역사업, '백련불교논집' 발간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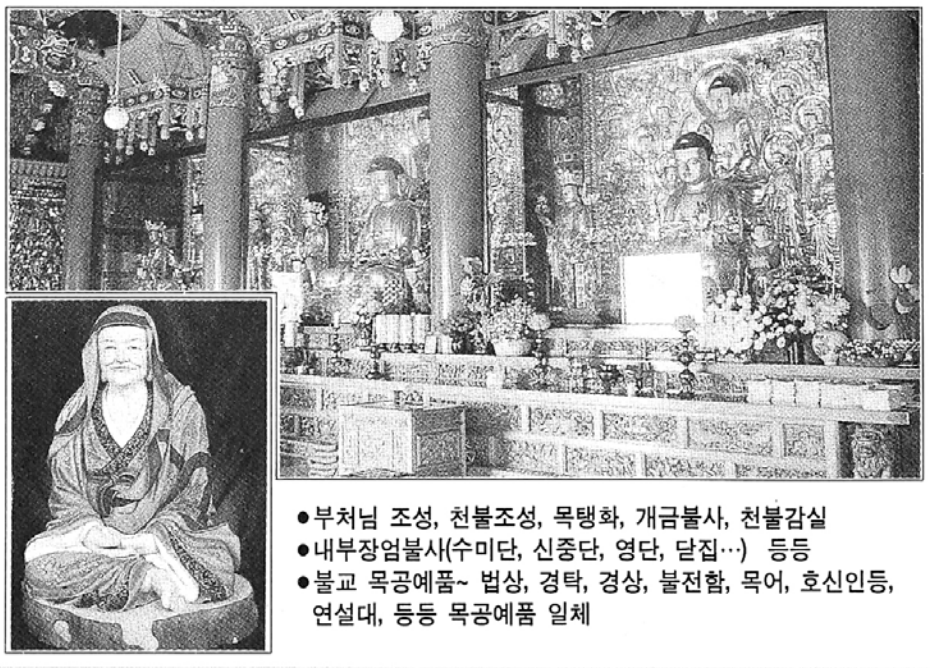
'한국불교학' '불교학보' CD롬 6月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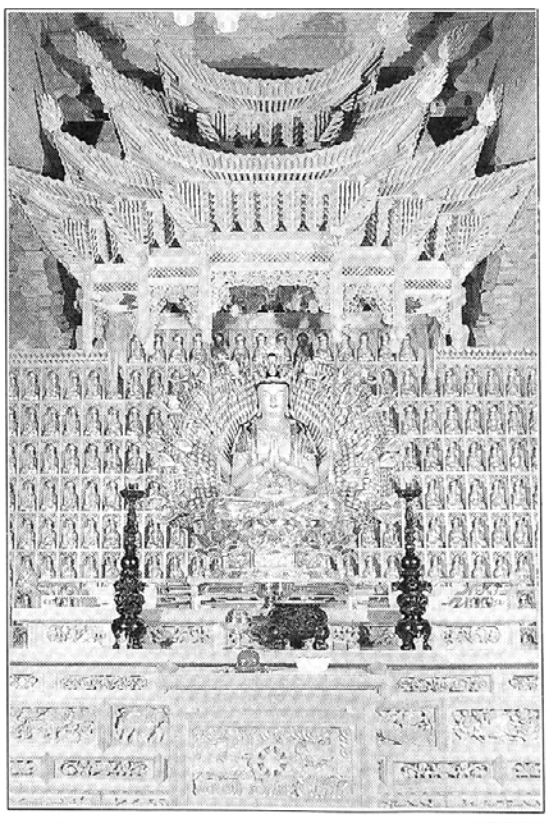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 펴내는 연간 논문집 〈불교학보〉와 한국불교학회지 〈한국불교학보〉가 CD롬으로 제작돼 선보이게 된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지난달 16일부터 예지이미지 기획에서 추진중인 전국 규모 학술지 전산화 계획에 따라 CD롬 제작에 착수했으며 인명이나 주제 등 검색조건을 다양하게 활용해 원하는 논문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오는 6월경 CD롬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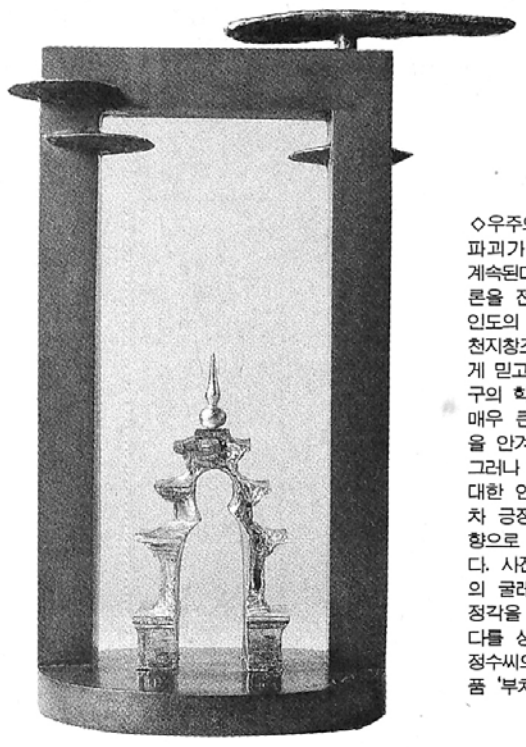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부처님 가르침

"모든 행위 상벌씨앗 간직"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⑫

윤 회 ②



◇우주의 창조와 파괴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우주론을 전제로 한 인도의 윤회설은 천지창조설을 굳게 믿고 있던 서구의 학자들에게 매우 큰 당혹감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윤회설에 대한 인식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윤회의 굴레 속에서 정각을 이룬 붓다를 상징한 심정수씨의 조각작품 '부처'.

유일한 존재는 '의지'…사물은 '의지의 표상' 쇼펜하우어

일회성 창조설 부정…서구 학자들 긍정적 인식

라드하크리슈난 "과실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은 인간의 공덕에 의한 윤리유지법"

데이비드 흄은 윤회설이야말로 철학이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영혼이 미래에서도 불멸한다는 교설은 동일한 논리로 영혼이 과거에서도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의지'이며, 세계의 모든 사물의 모습은 그 의지의 표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영원하고 편재(遍在)하는 그 존재가 지속적으로 세상에 나타난다고 신화화된 이론이 윤회설이라고 보았다.

인도의 윤회설은 우주의 창조와 파괴가 끝없이 계속된다고 하는 우주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주가 반복해서 창조되고 파괴된다는 이론은 무엇보다도 우주의 절대적이고 일회(一回)적인 창조설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이 사실에 접한 서구의 학자들은 혼돈스러워서 매우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설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창조에서 파괴로 이어지는 한 주기는 일겁년(Kalpa)동안 지속된다. 거의 무한한 시간인 겁의 단위를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인도의 경전들은 흔히 다음의 비유를 든다.

여기 3만미터의 바위산이 있다. 백년에 한번 베나레스에서 짠 부드러운 비단천으로 그 바위산을 스친다. 이렇게하여 바위산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기 전에는 일겁의 시간이 다 흐르지 않는다. 글쎄 최근의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아찔한 단위도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 같다.

서구인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장구한 서간단위에 인도인들의 정신은 익숙해져 있다. 기원후 2세기 프랑스 리용의 주교였던 유명한 신학자 이레네오(Lreneo)는 창세기의 6일간에서 힌트를 얻어 우주의 역사가 6천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말세론(末世論)은 인도인들에겐 우스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브라만신의 세계에도 밤과 낮 그리고 해(年)가 있다. 그러나 브라만신의 하루는 인간세의 43억2천년에 해당한다. 위에서 말한 네개의 시대에서 각각의 시대마다 인간의 수명, 키, 윤리가 다르다. 뒤로 갈수록 수명이 줄어든다. 황금의 시대에선 모든 인간들이 신처럼 오래 살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맨 마지막 철의 시대다. 브라만 신도 영생(永生)하지 않고 수명이 있다. 그는 36,000겁을 산다. 그가 죽으면 다른 브라만신이 태어나 다시 끝없는 창조와 파괴의 놀이를 계속한다.

새로 태어난 브라만신은 먼저 자신의 궁전을 짓는다. 거대한 궁전은 그러나 비어 있어서 쓸쓸하다. 브라만신은 다른 신들을 창조한다. 그뒤 메루산, 대지, 인간과 지옥을 창조한다.

불교에서 겁(劫)은 부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두시대로 나뉜다. 공겁(空劫)시대에는 부처님이 탄생하지 않는다. 불겁(佛劫)시대에는 연꽃이 피어 보리수아래에서 정각을 얻을 성자의 탄생을 알린다.

만일 이생에서의 탄생이 전생의 업보라면,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수많은 전생을 전전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해탈을 얻어 열반(Nirvana)에 들기만 하면 미래에 전전해야 할 수 많은 삶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은 허망한 부침(浮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생(前生)의 행위가 이 생을 결정하고, 이 생의 행위가 내생(來生)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다음 생을 결정하는 행위를 인도 철학자들은 업(業, Karma)이라고 정의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만들다' 혹은 '창조하다'를 의미하는 '크리(Kri)'에서 파생되었다. 업은 우리가 끊임없이 짜나가는 천(織物)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모든 행위, 말, 생각 그리고 어쩌면 꿈까지도 사후(死後) 그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가 받을 몸과 운명은 모두 전생의 업에 달린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라드하크리슈난은 업을 '윤리유지법(倫理維持法)'이라고 정의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를 윤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편 매 우주의 주기마다 그 우주의 산, 강, 대지, 바다, 숲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전(前) 우주 때의 인간의 행위라고 한다.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은 모두 인간의 공덕(功德)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리(地理)는 윤리의 투영(投影)이 된다.

업의 작용은 비인격적이다. 상과 벌을 판별하는 판관신(判官神)은 존재치 않는다. 모든 행위는 상이나 벌의 씨앗을 안고 있다. 그 결과가 행위 후 즉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것을 피할 도리는 없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태 곤 〈가수〉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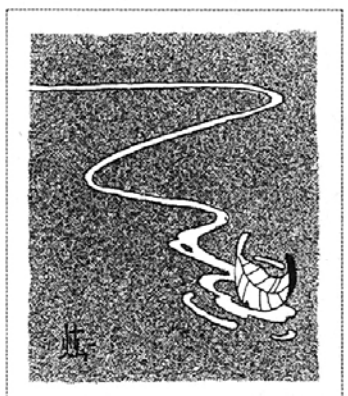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학사 있거늘
무엇그리 갈래갈래
깊은 산 속 헤맸나.

'송학사' 사람들 마음에 지은 절

제주해협 요트횡단 통해 집착끊는 '인내공부'

인간은 언제나 바로 옆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먼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20여년전에 불러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송학사'란 노래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송학사가 어디에 있는 절이냐고 물어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절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마음 속의 절, 그곳이 야말로 우리가 달려 가야할 자리란 생각에서. 노래의 마지막을 '어서 달려 가보세'의 반복으로 부른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군생활을 마치고 다시 생활현장으로 돌아 올 무렵 나는 삶과 죽음 인간의 본질,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 나이에 누구나 한번쯤 빠지게 되는 상념의 여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깊은 생각에서 나는 불교를 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 우리 고유의 것 즉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만난 불교는 내 삶의 좌표를 확고하게 지정해 주었다. 교리를 공부하고 참선도 해 보던 83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석주스님(칠보사 조실)께 전법사 품수증까지 받게됐다.



그때 나는 도자기 만드는 일을 저만치 밀쳐 놓고 달려들어 나의 업으로 삼아버린 노래하는 일로 포교를 하리란 다짐을 했었다. 이미 송학사는 많이 불리고 있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부르며 불교정신을 배울 수 있는 노래를 계속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러니까 84년에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 육체적 고통을 실컷 체험할 수 있었다. 하필 오른손을 다쳐 악기를 연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조금씩 아물어 가는 상처를 보며 더욱 큰 인내의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인내의 한계를 시험해 본 것이 86년의 제주해협 요트 횡단이었다. 4월의 첫 항해는 실패 했다. 캄캄한 밤중에 망망대해에서 미완의 항해를 마치고 내가 얻은 것은 급성간염이란 병명이었다. 그때의 추위와 허기로 나는 한달을 병실에서 간염과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은 젊은 나를 다시 바다로 내몰았다.

5월에 다시 완도로 나아갔다. 제주 함덕까지의 요트 횡단을 기어이 이뤄야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뒤에 비상선이 따라 오지만 홀로 요트에 올라 바람과 물과 싸우며 제주를 향해 물길을 잡아야 했다. 그때 나는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다. 다만 목에 108염주 하나를 걸고 있었다. 4월의 항해에서는 우리나라최초의 제주해협 횡단이란 기록에 대한 욕심이 컸던게 사실이었지만 결국 그러한 욕심을 알아챈 바다는 가차없이 내게 실패의 아픔을 안겨 주었었다. 두번째 항해에서 나는 목에 건 염주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 사전 답사나 훈련은 이미 승패의 요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다위에 떠 있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떠있는 또다른 나란걸 잘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완도를 떠나 남해의 질푸른 물위로 나는 흐르고 있었다. 두 손에 잡은 것은 로프라기 보다 바람을 다스리는 생명줄이었고 두발 아래에는 물을 다스리는 생명조각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었다. 목에 걸린 염주, 오직 그 염주가 남해를 떠흐르며 자력에 이끌려 가듯 제주 함덕해변으로 나를 데려 가고 있다고 믿었었다.

8시간의 항해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잊고 나를 잃어 버리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지난뒤 바다는 내게 성공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아려오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바다와 바람과 염주와의 대화로 극복한 댓가로 나는 제주해협 요트횡단의 첫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그 항해는 산모퉁이를 바로 돌면 송학사가 있듯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온 몸을 바다에 던져 배운 소중한 수행의 한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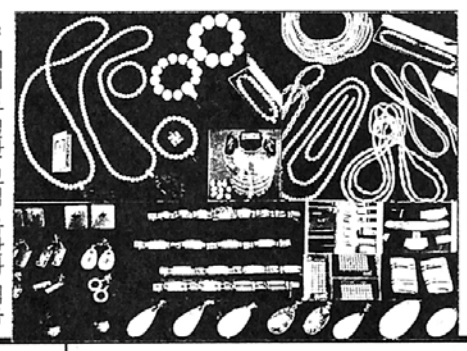
佛事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과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및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 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편치도록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 상담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5층)
전화 : (051) 864-3740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9-1906
이간 (0342) 706-3060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 매일신문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류머티병 91.8%, 어지러움증 91.3% 두통 88.9%,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송화연호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옥반지 84%, 옥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관념은 과학자의 관단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그 마음을 비춰라/신국판 267쪽/값7,500원
김재웅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91쪽/값3,8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번째 책 신국판 273쪽/값4,000원

도서출판 불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 2동 1269/ 전화 (0562)161-2231/ 서울 연락처 (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순수사/ 전화 (02)720-9072,9073/ 팩스 (02)723-0646
경상권 특약처/ 서울 백화빌딩 (02)742-0172/ 포항 우현동 빌딩 (0562)47-0303/포항 남구 성서 (0562)161-2231

연구및 복지기금마련
사찰음식 전국특판 및 직매장 모집 안내
본 연구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더 연구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부대중의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으로 전국에 보급코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취급품목
된장/고추장/더덕/무우/산초장아찌/김부각/참기름/솔잎콩죽/연자죽/콩반찬(一名 콩고기)/다시마선식/지리산작설차/둥굴레차
그외 다수상품 연구진행중 (각 가정에서 전화 주문해 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 모집지역 : 전국 각 지역
■ 지원자격 : 산중음식보급에 관심있는 분
☞ 전국취급점
서울:봉은사 516-6610 / 조계사 738-9466 / 도선사 324-4195 / 강남포교원 539-2631 / 불일서점 733-5388 / 불이식당 3443-8444 / 불광사 413-6060 / 광주:전통의학식품 (062)361-3382
♣ 사찰매점,신행단체 관광지 산채식당 대환영
♠남 · 여 직원모집♠
남 : 불교용품 취급 유경험자 환영 여 : 활동적인 불자 환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진 본인 직접 내사 요망)
대한불교 조계종 금륜정사
(부)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 식품 사업부
문의전화 : (02)245-0904, 248-0479, 246-6858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56〉

諸賢頌句 (제현송구) ③

聽教參禪遂外尋 未嘗回首一沈吟
청교참선축외심 미상회수일침음

가르침을 듣고 선을 참구한다하여 밖으로 찾아 헤매다가 일찍이 머리 돌려 한번도 깊이 음미하지 않나니

眼光欲落前程暗 始覺平生錯用心
안광욕락전정암 시각평생착용심

눈빛 떨어질 때에 이르러 앞길이 캄캄해짐에 비로소 평생 헛공부 한줄을 아누나

佛眼禪師十可行中三節
불안선사십가행중삼절

禮拜
예배

禮佛爲除憍慢垢
예불위제교만구

부처님께 예를 올림은 제 마음의 교만한 때를 벗겨내기 위한 것

由來身業獲清凉
유래신업획청량

유래신업획청량

玄沙有語堪歸敬 是汝非他事理長
현사유어감귀경 시여비타사리장

夜靜更深自誦經 意中無惱睡魔惺
야정경심자송경 의중무뇌수마성

밤은 깊어 고요하매(가만히 마음으로 경을 외나니) 의식 가운데 번뇌가 없고 정신은 더욱 맑고 또렷하다

雖然暗室無人見 自有龍天側耳聽
수연암실무인견 자유용천측이청

어두운 방에 아무도 보는이 없어 비록 그러하나 스스로 용과 천이 있어(내가 알고 천룡이 알고 법계까지도 다) 귀 기울여 듣는도다

靈巖石刻 勉僧看病
영암석각 면승간병

四海無家病比丘 孤燈獨照破牀頭
사해무가병비구 고등독조파상두

사해에 집없는 병든 비구여 외로운 등불만이 홀로 병상머리 비추누나

寂寥心在呻吟處 施藥須人仗道流
적료심재신음처 죽약수인장도류

病人易得生煩惱
병인이득생번뇌

병인이득생번뇌

고요하고 쓸쓸한 마음엔 신음뿐이나

"예불공덕은 몸으로 지은 죄 씻어내고
마음의 교만한 때 벗겨 내기위함이니"

예불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몸으로 지은 업이 맑게 씻어 지도다
현사(불경)에 이 말씀있으니 귀의 공경토록 하라 이는 너의 일이요 다른이의 일이 아니니 이치를 받들음이 오래일러라.

經行
경행

石上林間鳥道平 齋餘無事略經行
석상림간조도평 재여무사약경행

바위 위 수풀사이로 오솔길(조도는 새나 다닐수 있는 아주 좁디 좁은 길임)이 다닐만하다 심신을 재계하고 달리 할일 없거든 가볍게 거닐어라

歸來試問同心侶 今日如何作魔生
귀래시문동심려 금일여하작마생

돌아와 시험삼아 마음벗(마음 공부하는 도반 또는 자신의 마음자리)에 묻노니 오늘은 어떠하며 무엇을 했느냐고.

誦經
송경

夜靜更深自誦經 意中無惱睡魔惺
야정경심자송경 의중무뇌수마성

밤은 깊어 고요하매(가만히 마음으로 경을 외나니) 의식 가운데 번뇌가 없고 정신은 더욱 맑고 또렷하다

雖然暗室無人見 自有龍天側耳聽
수연암실무인견 자유용천측이청

어두운 방에 아무도 보는이 없어 비록 그러하나 스스로 용과 천이 있어(내가 알고 천룡이 알고 법계까지도 다) 귀 기울여 듣는도다

靈巖石刻 勉僧看病
영암석각 면승간병

四海無家病比丘 孤燈獨照破牀頭
사해무가병비구 고등독조파상두

사해에 집없는 병든 비구여 외로운 등불만이 홀로 병상머리 비추누나

寂寥心在呻吟處 施藥須人仗道流
적료심재신음처 죽약수인장도류

病人易得生煩惱
병인이득생번뇌

병인이득생번뇌

고요하고 쓸쓸한 마음엔 신음뿐이나

죽·약은 사람에게 구하되 도의 흐름에 의지하라.
병든이 번뇌 일어나기 십상이니

健者長懷惻隱心
건자장회측은심
彼此夢身安可保 老僧書偈示叢林
피차몽신안가보 노승서게시총림

건강한 이여 길이 측은심 버리지 말라
피차 꿈같은 몸 어찌 가히 보전한다 하랴 노승이 글로 지어 총림에 보이노라

眞淨文禪師頌
진정문선사송

削髮丕鬚雪滿刀 方知世月不相饒
삭발인경설만도 방지세월불상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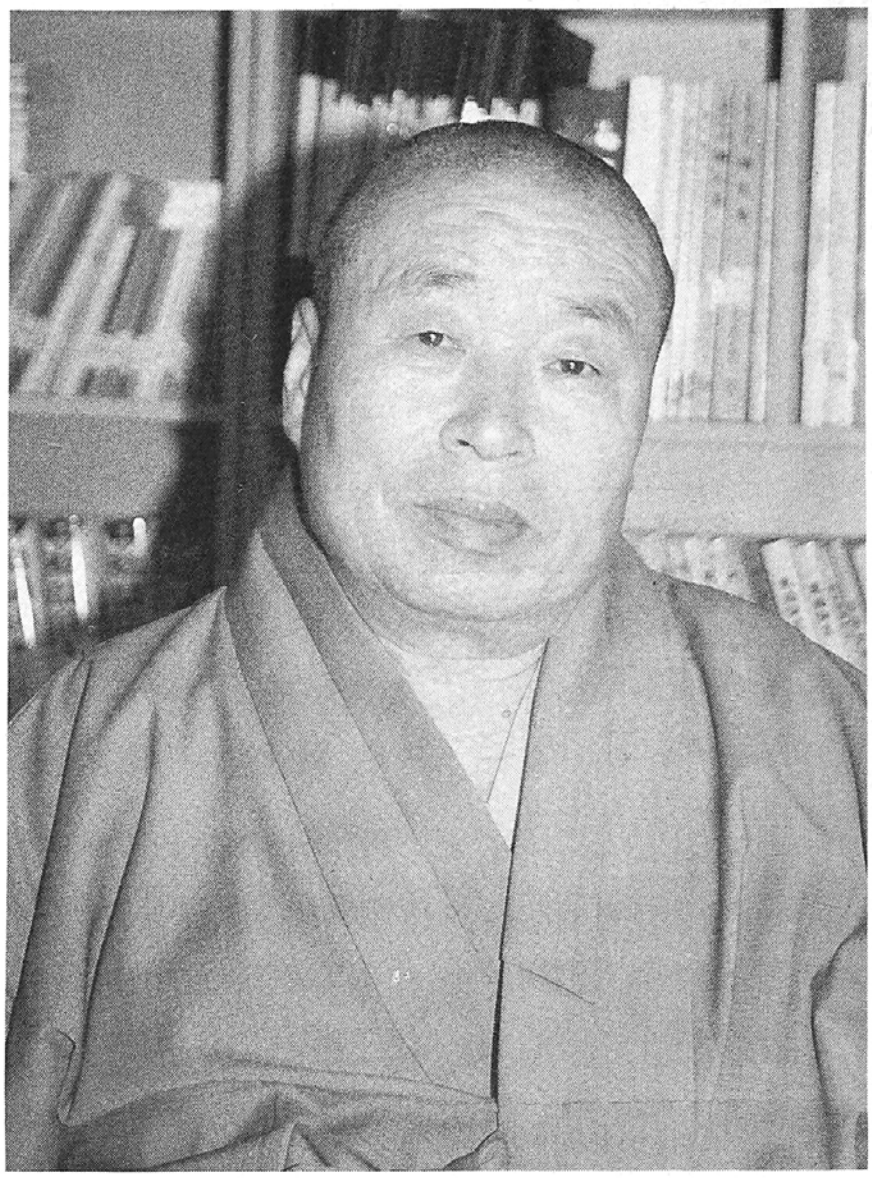
머리를 깎다가 삭도에 눈이 수북한것(흰머리가 수북히 떨어짐)보고 놀라노라
바야흐로 세월이 넉넉지 않음을 알겠도다

龍眼

★ 지상법석

"입으로만 사홍서원 외고

혜정스님 〈문수사 주지〉



약력
- 봉암사에서 청담스님 은사로 득도
- 58년 해인사 강원대교과 졸업
- 동화사 주지 역임
- 조계종 종회의원 역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부지런 하다고 해도 흐르는 시간의 부지런함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새 봄기운이 이 산사의 시방(十方)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흘러 찬기운을 따사롭게 바꾸고 나뭇가지마다 한바탕 봄의 잔치를 준비하는 소리가 요란스럽습니다.

저토록 소리없이 제할 일을 해 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왜소하고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해야할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부들은 가정에서 해도해도 일이 끝없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매일매일 일에 파묻혀 살지만 그역시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에 비해 영장일 수 있는 것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물이나 제 목숨 잇기 위한 일을 하겠지만 사람은 먹고 사는 일 말고도 여러 일을 하면서 인간집단의 발전을 더해 가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수행정진입니다. 그거야 스님네들

산비탈 잡목처럼
無常觀 수행자세로
탐욕·집착 버려야지
'내가 최고' 앞세우면
최하 중생으로 전락

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님이건 재가불자건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수행정진하는 자세를 놓아서는 안됩니다. 저토록 부지런한 시간의 흐름 위에 인간의 생명이란 얼마나 유한하고 나약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도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닦고닦아 시간보다 영원하고 우주보다 무한한 대자유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이생에서 해야할 가장 큰 일인 겁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 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역대 조사들은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대자유인이란 바르 부처를 이룬 각자(覺者)를 뜻하는 것인데 모든 중생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러면 그 각자의 자리로 이르는 법은 무엇이냐. 이 또한 부처님과 누대의 조사님들이 걸어간 길이 있으니 그리 절망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현실이라는 고해(苦海)에서 헤매이고 있을 따름이니 이 고해를 벗어 나겠다는 매몰찬 의지가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의 자리로 들기 위해서 수행정진을 해야 한다는것을. 그러면서도 오늘 바쁘고 내일 힘들어 수행정진을 미루고 미루며 흐르는 시간에 이끌려 가고 있을 뿐입니다. 더러는 참선도 하고 경전도 읽고 염불도 하며 수행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잘 안된다고 푸념을 늘어 놓기 일쑤인게 중생심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정진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서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아직 못이룬 중생들마저 구하겠다는 정신, 우리가 늘 입버릇같이 외우는 사홍서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노라고 서원하고 번뇌를 모두 끊겠다고 서원하고 법문을 다 배우겠다고 서원하고 불도를 다 이루겠다고 서원하는데서 우리의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몸과 우주를 꽉 채우는 서원이 없이는 수행의 행위가 현실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법회에 와서 입으로만 사홍서원을 그럴듯하게 외우고 그 의미를 알기는커녕 내가 무엇을 서원했는지조차 모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불성(佛性)이 있다고 했는데 왜 중생자리에만 머물러 있느냐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부처님같이 누대의 조사님들 같이 정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길을 달리고 들판을 헤메이고 바위 끝에 앉아 참선을 하고 바늘로 몸을 찌르며 잠을 털어내던 그 처절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부처의 자리를 생각하는것도 큰 도둑놈의 심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몸을 던져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갖는데서 참다운 정진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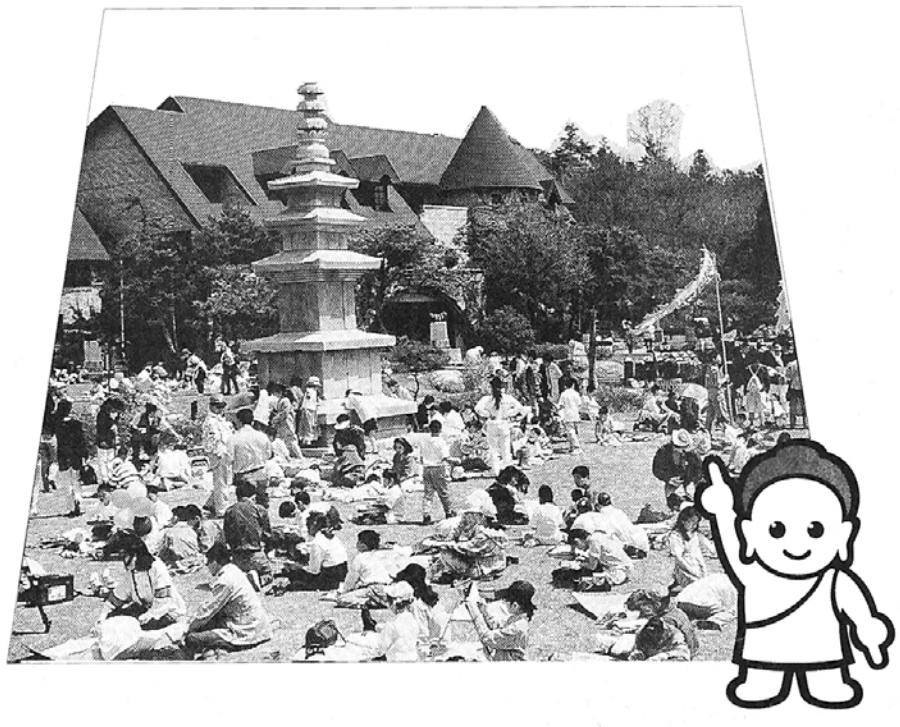
간혹 요즘시대가 말법시대라서 중생의 근기가 약해져 참다운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변명입니다.우리가 밝혀 알아서 부처의 자리로 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어느 자리에 말세가 있고 말법이 있으며 상생이 있고 하생이 있습니까. 괜시리 경전의 의미를 왜곡되이 알고 부처님 법을 폄하하는 무리들의 요설

'96 어린이날 기념

제2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부처님이 최고야!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많은 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치루어졌던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부처님 그림 그리기에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시: 1996년 5월 5일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
- 대상: 전국의 어린이(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시상: 종합 대상 1명,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 입선 150명, 특별상(단체상), 각 부문 상장 및 상품
- 참가비: 3,000원 (2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2,000원)
- 준비물: 도시락, 크레파스나 그림물감, 화판
- 참가자전원 목아박물관 무료입장, 기념 티셔츠, 호신불, 동화책 등 기념품 증정(선착순 1,000명)

문의전화: 월간「불광」 02) 420-3200
목아박물관 0337) 85-9952~4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한국불교미술인협회/ 주최:월간「불광」, 목아불교박물관 /후원: 봉축위원회, 불광사 불광법회, 재단법인보덕학회, 불교TV, 불교방송,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도솔회, 월간 동쪽나라, 도서출판 단이슬

지상법석

정진없으면 늘 중생자리”

“먹을때는 먹는 마음 운전할땐 핸들움직이는 마음 그대로가 수행이어야합니다”

에 빠지면 그 곳이야말로 말법의 구렁텅이가 아니겠는지요.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도 53선지식을 찾아가며 처음의 서원과 구도심을 여실히 지켰기에 마침내 해탈의 묘음을 들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산업사회라 해서 안될 수행이 없으니 여여한 원력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큰 원력을 세우고 또 하나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신심이 없이는 아무리 장대한 원력이라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신심 가운데서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 수행을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원을 간을 쓰는 지혜와 함께 물러서지 않는 용맹심도 중요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수행의 끝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끝자리는 해탈 열반의 장엄한 세계이겠지요.

물질문명이 발달 할수록 인간은 나약해져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발달된 물질이 편하게 해주니 몸을 움직여야 할 일도 적어지고 무슨일을 하다가 안되면 금방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육체는 점점 허약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에따라 정신도 약해져서 어렵고 귀찮은 일은 무조건 회피하려 하니 문제입니다. 3D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수

먹을때는 먹는 마음 그대로가 정진이어야 하고 운전할 때는 핸들을 움직이는 그대로가 수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수행정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삶의 모든 과정에 붙혀 놓으십시오. 문득문득 꺼내서 읽어 보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을 꺼내 볼 필요도 없는 때가 올것이고 그때쯤이면 이미 삶이 아름다운 구도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리라 확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깨달아 부처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까. 자신만 열반락을 누리려함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찾는 것이 수행정진의 목표인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을 청정히 갖추는 일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화엄경〉에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국토가 청정한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정진을 할때는 누구나 쓸모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일저일에 끄달려 바쁜 사람은 오롯한 수행의 시간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저 쓸모없이 산비탈에 서 있는 잡목처럼 고즈넉한 자세로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스스로 쓸모 있다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최고’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은 대부분이 맑지 못한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은 사실 마음 맑히기에서 출발해야하는 불교정신의 실천행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오염된 세상과 오염된 인간성만 만들어 내는 것임을 불자님들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집착과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상관(無常觀)’을 투철히 가져야 합니다. 이 우주법계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것은 변화하고 그 속에서 중생들은 살아 갑니다. 중생의 삶 그 자체도 무상의 여로입니다만 지금 이것이 영원하다고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뚱아리가 지금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그 몸뚱아리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 인연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연만큼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니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여 청정한 마음자리를 깨달아 영원한 참생명을 시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 합시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서원→믿음→정진→성불’

‘과연될까’ 자신 못믿으면 어떤 닦음도 헛공부

세우긴 했는데 과연 될까’라는 의심이 생기면 이미 그 공부는 금이 간 겁니다. ‘나의 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뤄내고 말겠다’란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금강석같은 믿음이 있을때 우리는 업생(業生)에서 원생(願生)으로 현전될 수 있습니다. 업생이란 업에 이끌려가는 삶이고 원생이란 원력으로 지어가는 삶이니 불자는 원생의 삶을 창조해내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스스로에 대한 굳은 믿음은 자신의 서원을 흐트리지 않는 힘이 될 것이니 조금도 의심없이 자기를 믿으며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원을 하고 자신에대한 믿음이 굳건하니 이제 무엇이 필요 하겠습니까. 앞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닦고 정진해야 합니다. 앞에서 시간의 부지런함을 얘기 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시간에 끌려 가는 사람과 시간을 끌고 가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무엇과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새 어제이고 내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행정진에 있어 시행을 한다는 사람들마저 어려운 지경에 닿아 쉽사리 포기하거나 편법을 쓰려 한다면 어느때에 해탈열반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들어 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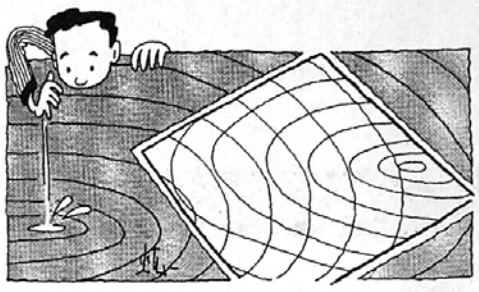
물러나는 그 자리는 곧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주를 채우고 넘치는 용맹심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시간도 공간도 훌쩍 뛰어넘은 자리에 빛나게 올라서는 대자유인입니다. 옛날의 스님들은 그 장한 원력과 신심으로도 모자라 등에 돌을 짊어지고 정진했다고 합니다.

바둑을 처음배우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아도 천정에 바둑판이 어른 거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둑에 온 정신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진도 그러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정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따로 정해둔 시간에 정진하고 다시 중생심으로 돌아가 실컷 먹고 마시고 욕하고 싸우다가 시간이 되어 정진을 한다고 그것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살이를 다 놓고 수행정진에만 몰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스님네들의 도리입니다. 다만 세상살이에 몸을 섞은 가운데서도 마음만은 언제나 수행정진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어서어서 깨달아 아직 미혹의 몸을 버리지 못한 중생을 교화 해야 합니다. 부처도 중생이 있음으로 해서 부처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성불한 곳에서는 부처도 중생도 구별이 없으니 그곳이 바로 극락정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극락정토를 세워 불생불멸의 대자유를 구하기 위해 수행정진하고 깨달음을 얻어 교화를 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는 단 한명의 중생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자신을 구제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스스로 마음 닦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시간의 흐름속에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마음공부 제쳐둔다면 언제 대자유인 될 것인가”

모든것이 다 변해도 부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두 부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온갖 번뇌와 탐욕이 먹구름이되어 그 청정한 불성을 가리고 있어 중생심일 뿐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불멸의 부처성품이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7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④

이중성 발견과 고전역학

빛의 운동 통해 ‘입자-파동’ 이중성 확인

사물의 본질 보는 시각에 큰 변화 가져와

고전역학적 우주관은 바로 인과의 세계를 뜻한다. 불교적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인과의 사슬에 묶여 돌고도는 생사윤회의 세계를 뜻한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꼼짝달싹할 수 없이 결정되어 있기에 적극적인 수행도 의미를 잃는다. 적극적인 수행마저 그렇게 되도록 인연따라 결정되어 있으니 수행을 하지 않은들 인연이 그런걸 본인에게 무슨책임이 있겠는가. 결정된 과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그 인연과보를 끊을 수 있겠는가. 고전역학의 결정론적 인과율이 절대적이라면 불교가 설 땅은 없다. 실제로 불교가 인도의 서쪽지방, 이란 아랍 그리스등에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고전역학은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므로써 보는 것 듣는 것이 있는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누가 거기에 그것이 있다고 인식하므로써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거기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일상적 경험으로 볼 때는 옳게 들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야심경은 오온개공이라고 설했다. 이제 현대물리학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물리학자들이 일상적 경험의 세계를 뛰어 넘는지 반야심경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기로 하자. 사건은 입자-파동의 이중성을 관찰하므로써 시작된다.

사람은 사물을 두가지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누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실체와 허상, 유와 무, 선과 악 등인데 물질세계에서 나타나는 입자와 파동도 이 대립되는 개념에 속한다. 미리 말해 둘 것은 현대물리학에서는 입자-파동의 이중성에서 말하는 파동을 사람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이한 세계로 사람을 끌고 가지만 이중성이 논리적 모순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전물리학에 길들여져 있던 물리학자들은 이 파동을 물질이 파동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입자에 대립되는 개념인 물질파로 보았기에 논리적 모순을 가져왔다. 이중성이란 말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물질파로 해석하여도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별 지장은 없으므로 먼저 물질파와 입자에 관해 설명하겠다.

고전물리학에서 입자의 개념은 단순하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입자다. 입자는 실체를 뜻한다. 이에 반해 파동은 실체가 운동하므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을 뜻하므로 허상이다. 물결파를 예로 들면 실체인 물이 진동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물결파다. 존재하는 것은 물이다. 물결파는 물이 없으면 나타나지도 않지만 물은 물결파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존재한다. 실체와 허상에 불과한 하나의 현상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면 실체인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할 수 없고 파동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입자는 일정한 공간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파동은 머무른다는 법이 없다. 물결파가 생기면 전체 수면으로 퍼져 나가듯이 파동은 반드시 퍼져나간다. 한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면 자연현상에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호수의 이쪽과 저쪽에서 돌을 던져 두군데서 물결파를 만들더라도 결국 합쳐서 하나가 되어 간섭현상(Interfernce)라는 현상을 만든다. 입자는 하나, 둘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와 하나가 모이면 둘이 되는데 반해 파동은 둘이 합쳐 반드시 하나가 되지만 그것의 세기는 두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배가 되기도 하고 아예 소멸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입자는 당구공끼리 부딪쳐서 서로 튕겨내는 것처럼 운동량(運動量)을 주고 받지만 파동은 운동량을 갖지 않으므로 물체를 튕겨낼 수 없다.

입자와 파동은 이렇게 다른 것인데 파동의 성질만 보여오던 빛이 입자인 전자를 때려 튕겨내는 현상을 물리학자들이 관찰하게 되고 실험적으로 빛의 이중성을 확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되고 나아가 모든 입자가 입자-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새로운 현상은 사물의 본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을 요구하며 실제로 새로운 세계로 물리학자들을 이끈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난치병,조상묘지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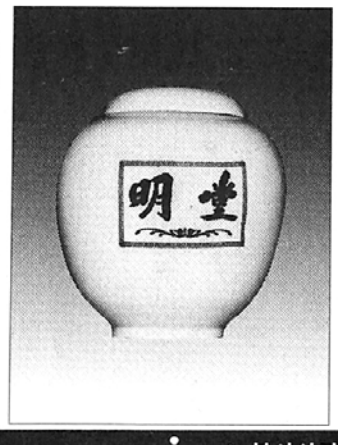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묘지상담

-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전 화 : (02) 3401-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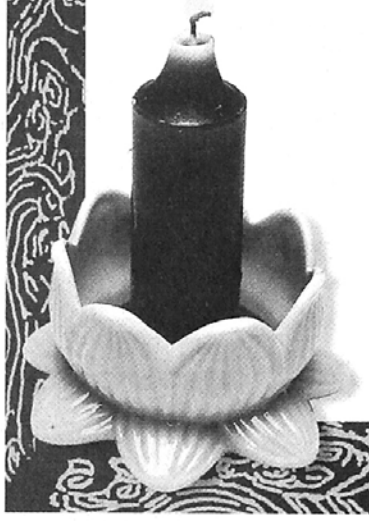
천연색 화보를 곁들여 봉축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해줄
사월 초파일 법보시용 소책자

부처님오신날

주요 수록내용
영원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
룸비니동산의 큰 광명
누리에 넘치는 기쁨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의 공덕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나라의 연등행사
민간의 초파일 풍습
오늘날의 연등공양
부록/초파일 봉축발원문과
불기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취장 해설

500부 이상 주문시 뒷표지에 해당사찰의 주소, 전화번호, 법회안내, 법회식순, 시주자명단 등을 원하시는 대로 인쇄해 드립니다. 별도 인쇄의 부담이 있으므로 주문은 최소한 10일 이전에 해주십시요.

국판 36면 본문 100SW 사용 원색인쇄
법보시 보급특가 : 부당 1,000원



문의처/불교방송 사업부 ☎ (02) 705-5302~6
특판팀 : (02)718-4625~9 부산 : (051)852-2220
서울제1사업소 : (02)706-3502 대구 : (053)755-9537
서울제2사업소 : (012)353-1081 광주 : (062)369-4848
서울제3사업소 : (012)200-7300 원주 : (0371)763-0857
불교방송 매점 : (02)705-5307

전화 문의하시는 사찰에는 견본 1부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고은 불교대하소설

어둠 속의 벽화

막고굴 북대실에는 여러개의 횃댓 그럼한 방이 있다. 매캐한 묵은 흙냄새가 꽉차 있었다. 지난 날 동서의 승려들이 모여들어 수행과 기도 그리고 역경에 열중할 때에는 한 사람이 방 하나를 차지하는 것은 꿈 드문 일이었다.

그만큼 동서가 만나는 이곳 돈황 일대에는 구도승과 전도승 그리고 신도들이 많이 모여들어 마치 은성한 장시(場市)를 이루는 듯 하였다.

한(漢)의 시대를 지나고 수·당에 이르는 동안 이 막고굴 승원에는 로마인이나 터키인까지도 불교에 귀의하여 한갓 고즈넉한 선승이 되어 명상에 파묻혀 있었다.

그러므로 멀리 동으로는 백제 신라와 일본에서까지 몇명씩이나 이곳에 와 공부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인도승이나 서역승도 이곳에 와서 공생을 마친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럴진대 이곳은 중원땅에서도 멀고 먼 변방이거나 돌아갈 수 없는 오지로 여기고 페르시아에서도 멀리 멀어진 변방이거나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여기지만 이곳이야말로 그런 동과 서에 대해서 실로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이곳의 불교는 매우 독자적이었다. 이를테면 나라마다의 황실이나 권력의 직접적인 영향 밖에서 자유분방할 수 있었고 이곳의 승려들도 이 일대의 군소국들의 경쟁적인 완충지대가 됨으로써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곳에서의 설법도 활빈 권력에 대하여 의존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부터 이곳 불교는 다만 장엄한 암굴사원을 남겨놓은 채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해마다 난만하게 피어나는 연꽃호수에서 어느해 갑자기 연이 피나서 돋아나지 않는 것과 같이 처참한 노릇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오랜 전쟁에 시달린 나머지였는지 모른다. 전세에 따라 이 일대를 주둔하는 쪽이 자주 바뀌는 일이야말로 더이상 이곳의 불교가 그 맥락을 잇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전쟁 다음으로는 사막의 변동에 의해서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데 그 원인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무튼 이 찬란한 하루하루로 발전하고 있던 막고굴의 시대가 언제부터인가 폐허와 텅빈 동굴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이래 실로 천년 이상의 세월을 지난 뒤에 도리 일행의 강도집단이 수행자로 변신함으로써 지난 날의 그 림자를 새겨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이 세상사람 모두에게 잊혀졌던 것은 아니다. 이따금 지난 시대의 사막 통로를 찾다가 길을 잃고 사경(死境)을 헤맨 나머지 기적과 다름 없는 막고굴과 월아천의 비경(秘境)에 이르러 살아날 수 있었던 몇사람 쯤의 장사꾼이나 순례자가 없지 않았다.

실지로 위그르족의 몇 젊은이는 꿈속에 이곳이 나타난 뒤 그 꿈에 의존해서 이곳까지 찾아온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곳을 발견한 사람들은 지 분간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는 것이나 그가 그의 떨거지를 이끌고 이곳을 목적으로 해서 오게 된 일도 그 자신의 결단만이 아니라 어떤 영혼의 유도(誘導)에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오래동안 비밀에 싸인 이곳에 와서 이제부터 이곳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러나 며칠사이에 이곳의 굴벽이나 절벽이라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절벽 위의 모래산이 무너져내려 모든 것이 파묻힐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로 한낮에도 어두운 굴실 안에서는 희미무레하게 보이는 굴실 앞쪽의 벽화 속에 그려진 그림만으로도 쉽사리 친해질 수 없는 외경스러운 대상이었다.

만화와 불이 그리고 합두는 각각 독방을 쓰게 되었다. 굳이 독방은 배정될 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북대굴 안에는 세개의 독거승방 이외에도 빈 곳이 아주 많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합동법회 장소인 법당이나 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방도 빈 상태였다.

도리가 북대굴에 들른 것은 이곳에 도착한지 4일만에 전원 20명을 굴밖으로 불러내어 정식 집회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한 뒤였다.

그는 오랜 사막의 여행 때문에 지친 사람들을 실컷 쉬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하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좀더 제멋대로 쉬게할 작정이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위한 장례식을 법회의 형식으로 치뤄낸 판에 도리는 그 대중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하게 된 것이었다.

장례는 수양버들이 우거진 월아천 밖의 사막 한군데의 모래무덤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으로 끝마쳤다.

그런 뒤 사람들을 막고굴 입구의 절벽 아래에 집결시켰다.

"한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갈 길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과도 상관없는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공부만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잠 자고 싶으면 잠을 실컷 자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잠만 잔다는 것도 또하나의 지옥일 것입니다."

"…"

"그렇다고 잠을 쫓으며 명상이나 요가에만 온몸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기도와 염불만을 하라고 권하지도 않겠습니다. 장차 우리는 서역에서 더 들여와야 할 경론(經論)들을 이곳에서 번역도 하고 이미 장안이나 낙양에서 깊이 연구된 것들도 구해다가 그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일도 해야겠습니다."

"…"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뜻에 맡길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라… 이곳 어둠의 동굴이 굳이 싫다면 어디로든 떠나도 좋습니다… 이곳은 어느 누구도 속박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만 이곳을 떠난 사람이 이곳에 관한 얘기를 한 토막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곳 얘기를 한 사람은 사흘 안으로 죽게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거처하는 남대굴로 찾아오기 바랍니다."

"…"

"앞으로 음식은 하루에 아침과 점심 두 번이고 저녁은 먹지 않는 1일2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옷은 벌써 양관에 사람을 보냈으니 그곳에서 지어 올 것입니다. 침구나 닿아둘 분짝 따위도 다 맞춰올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도리의 시중을 들던 젊은 부하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도리의 의도는 착착 실현되는 셈이었다.

그런 도리가 집회를 끝내고 사람들이 각자 제 거처에 들어간 뒤에 북대실로 찾아온 것이다.

어느덧 그에게는 강도집단의 새 두령이기보다는 수도원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경건성과 함께 어떤 강제도 내팽개친 겸허한 친화력을 잘 보여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 북대실이야말로 장차 큰 인물이 나와 세상을 구제하러 갈 도량이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라며 한없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일찌기 부처님께서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셨지만 나는 세상을 구제하러 오는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기 위해서 파도치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녕…"

"들리지요? 파도소리가… 끝없는 바다와 사막에 한데 어울어져 내는 파도소리가… 저 소리가 부처와 보살을 부르는 소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귀를 기다듬은 즉 굴 안에서 멀리 멀리 파도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굴 밖의 사막에서 만들어낸 소리의 종합이기도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귀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허구(虛構)인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어떤 구제를 바라는 염원이 마음 깊이 솟아나는 것인지 모른다.

합두가 도리에게 물었다.

"도리님께서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넌지시 던진 이 질문은 합두의 전생 무육도에 대한 기억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과연 불이나 합두는 적어도 전생 몇생에 대한 기억은 가질 수 있을 만큼 심식(心識)이 밝았다. 그것은 유식학(唯識學)의 제7식 제8식의 어느 경지에 다가갔던 공부의 결과일 터이다. 바로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가의 여부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도리가 별 뜻도 없이 대답하였다.

"아무리 이곳이 바다를 모르는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의 어느 중생이 바다에서 살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 전생이 바다밑 용왕을 섬기는 고기였던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고기를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합두가 오랜만에 약간 짖은 눈을 빛내면서 다시 물었다.

"섬에서 사신 적도 있으셨지요?"

"그렇겠지요. 바닷가에서 산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열세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기잡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몇사람이 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합두가 불이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 · 조향숙



74

"북대실이야말로 세상을 구제하러 갈 도량입니다 바다와 사막이 내는 저 파도소리가 부처와 보살을 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숨겨둔 별천지 막고굴에는 침묵을 요구하는 어떤 힘이…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취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 · 지압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등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병행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8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연꽃 일어화 기타(병풍, 액자, 족자용)
거송 동양화 화실
거송 철학원(운명 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라 1가동 140 - 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전통 미술 맞춤 대주나무(오동, 부석재료) 전통 식별법 및 전통 금개보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 · 아스팔트 · 쉉글
전화 (053) 742 - 7855
015- 717 - 7792
011 - 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번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복자(회복)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포교당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 위치:동대문구 장안4동
■ 법당:50평,시설 일체 완비
■ 연락처:(02) 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여주(신륵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흥사):법당 수미단 불상 좌대등
• 충주(정토사):대웅전 문짝
• 속리(법주사):대웅전 영산전 문짝
• 성남(봉국사):대웅전 문짝 일체
• 춘주(삼막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막
• 아산(공근사):대웅전 수미단 불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보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막불상
•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5-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업계 종이된 최신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청기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업희(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강의교사」 특별제공(부인 65천)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3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무고하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글 독자에 하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무족하나마 저와 같은 입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최정임(남, 27세)드림—
대한교육평가원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우110-410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한양빌딩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작은 도움이 큰 기쁨 됩니다"

속초복지관 '사랑의 도우미' 발족



◇지난 13일 발대식을 갖은 사랑의 도우미들은 속초시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할머니 이젠 걱정마세요. 저희들이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돼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일요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뵈러 가기로 약속했답니다."

지난 13일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에서 개최한 '사랑의 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한 3백여명의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사랑스런 손자손녀가 되어 우리 할머니처럼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강원 불교계 처음으로 자원봉사단 '사랑의 도우미'를 발족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발족한 사랑의 도우미는 아동에서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 사절단, 청소년 도우미, 속초사랑 도우미의 세부분으로 구성된 사랑의 도우미는 지역내 무의탁노인, 장애인, 환경운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우정 사절단은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캠페인을 벌인다. 어린이 우정 사절단에 가입된 회원에게는 저금통(한마음 법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복지관에서 두달에 한번 저금통을 수거해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의 결연후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도우미는 양로원, 고아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위문봉사활동을 펼치며 마을청소 및 환경정리(나무·꽃 이름달기, 가로수 가꾸기, 학교주변 청소),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돕기 등의 봉사활동도 하게 된다.

복지관의 한관계자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가 만연돼 있는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내 시민들로 구성된 속초사랑 도우미는 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병, 가사 및 집안청소, 밑반찬 및 목욕서비스 등의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 청소년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참석한 사랑의 도우미들은 발대식 이후 복지관을 출발해 속초시내를 거쳐 수복탑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거리캠페인도 펼쳤다. 그동안 자원봉사단 사랑의 도우미를 준비해 온 관장 지홍스님은 "불교가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행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무료요양원을 비롯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지역내 사회복지의 교두보로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평이다.

김중근 기자

어린이·청소년·시민 3백명 '불우이웃과 情나누기'

무의탁 노인·장애인·청소년 가장돕기 환경운동도

5월 5일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 걷기대회

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의 전화' 공동주최

"호국정신 되새기며 자연보호운동 실천"

망월사서 퀴즈대회 … 동참자에 호신불목걸이 선물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5월5일 어린이날은 가정의 달 5월의 피크이다. 이날을 맞아, 연중캠페인 '새싹불자를 키우자'를 통해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온 현대불교신문은 청소년 상담기관 '마음의전화'와 공동으로 '남한산성 걷기 대회'를 벌인다.

남한산성(사적 제 57호, 해발 490m 둘레 8km) 은 불교의 호국정신과 조선의 선비정신이 어우러진 유서깊은 교육현장으로 청소년들이 민족의 진취성을 배우고 호국불교 정신을 통한 신심을 다질 수 있다. 더욱이 가족과 함께 참여해 가족사랑을 만끽하며 자연보호 환경운동도 겸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과 함께 역사를 배우며 자연환경도 가꾸기' 위해 열리는 '청소년 남한산성 걷기대회'는 초 중 고교 학생과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2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 위치한 만해기념관 관장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의 인솔 강의로 남한산성의 역사를 낱낱이 배우며, 망월사에서 퀴즈대회도 벌인다. 특히 동참자 전원에게는 목아박물관에서 제작 기증한 호신불목걸이를 선물한다.

'가족과 함께 남한산성 걷기대회'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더욱 뜻깊게 보내는 유익한 하루가 될것으로 보인다.



일시
1996. 5월 5일 (일요일) 하루

참가대상
초 중 고교 학생과 부모, 선착순 200명

인솔강사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 만해기념관 관장)

출발 및 집결지
출발지: 조계사 앞 (오전 8시)
경유지: 양재구민회관앞 (오전 8시 30분)
집결지: 남한산성 남문 도착(오전 9시)
※ 가족끼리 개별 도착 가능

대회일정
09:00 남문도착 입제식및 행사내용 설명
09:30 남문출발
12:30 망월사 참배·점심공양
13:30 강의및 퀴즈대회
14:00 망월사 출발
16:00 남문도착·해제식
17:00 양재구민회관 앞

참가비·준비물
참가비: 1인 1만원
준비물: 도시락, 기록장,

특기사항
- 온 가족(아빠·엄마·청소년) 참여자는 퀴즈대회시 추첨하여 특별상 수여.
- 참가자 전원에게 호신불목걸이와 모자 선물
- 비디오 촬영을 실비로 제공(신청 가족에 한함)

만화 法句經 법구경

* 길의 장 *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이 향 원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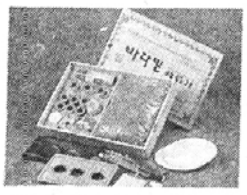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둥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증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본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번지 (한신상가 5층5층)
■대한 불교 조계종 보문 포교원(원장 각종 스님)
■부설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전화 :(051)864-3740

본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 :(0342)706-3060

서울강남지회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02)747-7033
부산지회 :(051)516-2713(지정전시)
대구지회 :(053)323-2598
대전지회 :(042)222-4936
광주지회 :(062)228-8544
제주지회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0696)73-0039
경남마산지회 :(0551)23-9016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모집 완료 •통신 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0명 •야간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4월 26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불서는 지혜의 寶庫"

생일·결혼 선물은 책으로…"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4월 12~18일 '도서관 주간'



◇ '책의 날'을 기념해 한국고서협회(회장 여승구) 주최로 지난 13~16일 공평아트센터에서 제3회 서을 국제고서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고서 2만6천여권이 전시됐다.

지난 4월12~18일과 23일은 각각 도서관주간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었다. 도서관주간은 제32회를 맞았고, '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출판협회(IPA)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선포됐다.

스페인 북동지역인 카탈로니아에서 한권의 책과 꽃 한송이를 선물하는 풍습에서 유래된 '책의 날'에 맞춰 국내에서도 문학서적과 장미꽃을 무상 배부하는 행사를 갖는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유포의 공덕이 칠보로 돌 등 기념일에 맞춘 법공양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종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찰도서관'을 종단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불서 유통·보급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오랜 전통과 기복신행의 만연으로 책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는 일은 언제나 2차적인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다종교 사회와 고등교육의 일반화, 정보사회를 맞은 오늘날 예전처

기복 탈피·새 신행운동으로 바람직

사찰도서관 운영 '불서 읽기'에 한몫

세상을 장엄하는것 보다 월등하다'고 누누히 강조하셨다. 요즘 교계에서는 법보시 법공양 등을 통해 '책 선물'풍토를 확산시키고 아울러 '불서 읽기 운동'을 펼쳐나가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49재나 천도재 등 각종 불교의식에서의 법공양이나 불교출판계의 법보시 관행을 잘 활용한다면 '불서 선물' 풍토의 조성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를 확산시켜 결혼 회갑 생일 등 각종 기념일에 불서 선물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불서 유통·보급은 물론 불교계 전체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사찰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찰도서관은 불교신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사찰도서관은 1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 3백여개 이상이 추가로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전국 4천여개에 달하는 문고를 점차 양성화해 오는 2001년까지 6천개 이상을 확장하고 해당문고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장서 1천권 이상과 10평 이상의 서고 및 6석 정도의 열람석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지 문고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을문고, 도서대여점 등의 확산에 발맞춰 불교계도 종단차원의 사찰도서관 지원과 불서 읽기운동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책의 날'에 만나본 독서광

시설안전기술공단 조 태 선 감사실장



"불법(佛法)과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이 책읽기입니다. 책을 쌓아두면 언젠가는 읽게 돼 있어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불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선 가르침을 주기에 '나무보다는 숲속을 보게하는' 관조(觀照)의 삶을 살게 합니다."

집안에 온통 책을 쌓아두고 사는(장서 3천여권중 불서 5백여권),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 조태선씨(53·시설안전기술공단 감사실장)는 한달에 책을 수십권씩 주문하는 조계사옆 책방 '여시아문'의 단골손님. 바쁜 직장생활로 책방을 자주 찾지 못해 통신판매(도서회원제/전화: 737-0695)를 자주 이용한다.

그는 '거목을 보고 숲을 봤다고 하지 말라. 지혜를 얻어 자신의 진정한 스승이 되라'는 〈법구경〉의 가르침대로 욕심과 집착으로 가려있는 편협한 알음알이를 깨뜨리고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 책을 읽는다. 불서는 꽉 짜여진 사회생활의 쪽새를 풀어주는 불법으로의 안내자이자 편안한 휴식처다. 평일에는 책을 벗삼아 관념의 여행을 떠나고 주말이면 원주 석경사나 이천 정토사에서 1박, 묘목을 심는 일로 평상심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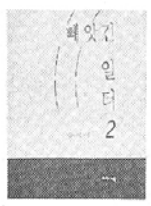
조씨는 책과의 대화를 통해 욕심과 분별심을 녹여나간다. 그에게 있어 불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속에 적용하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재〉

"부처님말씀 일상의 교과서"

주말이면 사찰찾아 묘목도 심고 마음정화

새로나온 책…







▲우리역사의 여러 모습(이기백 저)=우리나라 역사를 사원, 문자·인쇄, 문학, 미술, 정치제도 등 23개 분야별로 재미있고도 실감나게 정리했다. 많은 자료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학생에서부터 어른까지 부담없이 역사를 공부하게 했다. 〈일조각 9천원〉

▲빼앗긴 일터 2(진관스님 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스님의 새 시집. 지난해 6월 조계사에서 농성했던 한국통신 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겪은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시어를 엮었다. 〈여래기획 법보시〉

▲감동을 주는 비보(김갑수 편저)=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는 한번쯤 바보가 되어 보는 것도 좋다. 삶의 지혜를 주는 짧은 이야기 속에 문득문득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철학하는 바보'시리즈 제5권. 〈보성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2	기도	일 타	효 림
3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4	능업경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5	달마에서 경허까지	박 영 규	정신세계사
6	업보	혜 범	밀 알
7	삶에서 깨어나기	틱 낙 한	장 경 각
8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 비	민 족 사
9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10	만화로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한·중 불교문화 교류사



목 정 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한·중 불교문화교류사〉이다. 황유복·진경부 교수가 함께 쓰고 권오철 선생이 번역 출판하여 한국과 중국의 불교 전반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초기 중국불교는 전역불교에 관심을 쏟아 구역·신역 번역사업이 전개되어 범어불전을 중국어 불전으로 전화시키는 데 있어서 수백년의 역사가 점철되었다. 이 불경번역이 기초되어 종파불교가 발전되게 되며 여러 형태의 교상판석이 수립되고 이로 말미암아 종파불교의 체계를 조직하게 된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나의 종교가 전래될 때 비단 종교만이 오롯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 종교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전반이 총동원되는 것이다. 예술, 조각, 음악, 공예, 건축, 기명, 복식등 승랑, 원측, 김지장은 중국불교에 삼론, 유식, 지장신앙을 고취시키는데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므로 한국도 중국을 통하여 수준 높은 불교를 받아들여 한국인의 심성에 호응하는 밝은 정신을 계발하여 화쟁의 논리, 자비의 구현, 정토의 이상을 체계화하는 데 힘입었다.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이 빛난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중생은 삶의 근본이 깨달음의 앎으로

양국불교 상호보완 관계 조명

전래와 수용과정 상세히 서술

일체의 종교문화가 함께 전승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당의 불교는 교학체계의 불교가 아니라, 수·당의 불교문화가 만개함을 밝혔다.

한국도 이러한 문화전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시대에도 중국과 분물을 교류하면서 발전된 것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전진시대 이후부터 중국은 불교교류를 시작하여 양국은 서로 불교적 문화체계를 보완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완이란 말은 중국불교를 전래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승려들이 중국불교에 기여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문화는 수준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전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독창적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력을 가졌기 때문에 보완하였다고 하는 하나되어야 함은 마음으로부터 밝혀내는 긴 수행임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을 주지시켰다. 아무튼 황유복·진경부 두 교수의 작업에 의해서 한국과 중국이 자비대해에서 한 부처님을 신앙하였다는 사실을 역사적, 문물적, 인물적, 예술적 방향에서 하나 남김없이 연구하여 하나의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앞으로도 양국이 일불승(一佛乘)의 세계에서 공존할 원력을 찾게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한중불교교섭사의 연구는 중국과 한국을 새삼스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작업을 도외시 한 것을 지금에서 이룩한 것이라 더욱 중요한 서책이 아닐 수 없다. 중국문화의 이해와 한국문화의 성찰은 국경을 넘어선 철학, 역사, 사상이 될 것으로 믿고 일독을 권유한다.

화제의 책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 — 이평래 지음



충남대 이평래교수(철학과)의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는 〈대승기신론〉을 중심으로 원효 혜원 법장의 기신삼소(起信三疏)를 분석·종합해 여래장(如來藏)설을 조명한 연구서다. 여래장사상이란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여래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수행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원효를 토대로 불교의 심성론을 총결짓고 있는 이교수는 원효의 심성론이 단순한 유심론의 체계가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 깨달음을 이론정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한다. 원효는 일심의 본체를 여래장으로 표현하고 여래장을 생사의 의지처로 파악했으며, 역사와 문화창조의 동력인으로 보았다는 설명이다.

원효의 삶은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살아 숨쉬는 사상의 전형'이란게 저자의 고백.

〈민족사 1만5천원〉

원효·혜원·법장의 기신삼소 분석서

김영우와 함께하는 전생여행 — 김영우 지음



"전생은 존재한다. 그리고 기억할 수도 있다. 이유없는 질병과 정서 장애는 많은 경우 전생에 그 원인이 있고, 그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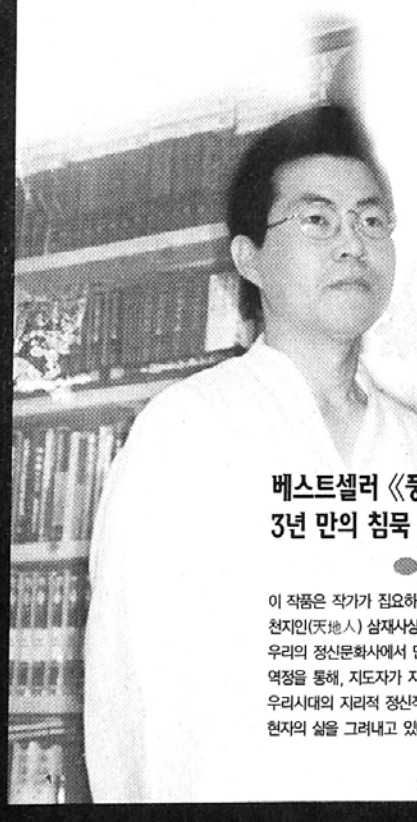
이 놀라운 말은 점술가가 아닌, 과학과 현대의학의 지식으로 무장한 한 정신과 전문의의 주장이다.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은 국내 최초로 전생 기억 유도에 성공한 김영우 신경정신과 원장의 충격적인 보고서다.

경희대 의대와 인제대 의대 외래교수인 김영우원장은 국내에 몇 안되는 최면요법의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최면기술중의 하나인 '전생퇴행(前生退行)요법'을 시행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의료인이다.

부록으로 전생퇴행을 위한 이완상태로 이끄는 김원장의 '최면유도 테이프'가 들어있다. 〈정신세계사 1만원〉

"질병은 전생을 기억하면 치유된다"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김 종 록 장 편 소 설

전국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제왕의 길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보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베스트셀러 《풍수》의 작가 김종록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힘찬 소설!

이 작품은 작가가 집요하게 탐구해가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과
우리의 정신문화사에서 만난 거인 도선국사의
역정을 통해, 지도자가 지녀야할 미덕과
우리시대의 지리적 정신적 통합의 논리와
현자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쇠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한강토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낼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유불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되 서로
어그러짐이나 축남이 없었던 대인(大人)이었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는
대당 유학승이 행세하던 시절 원효성사가 그러했듯
이 땅에서 득도하여 비유비불비선의 해동 지성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살았던 신라 말이나 오늘 우리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여
천년 전의 그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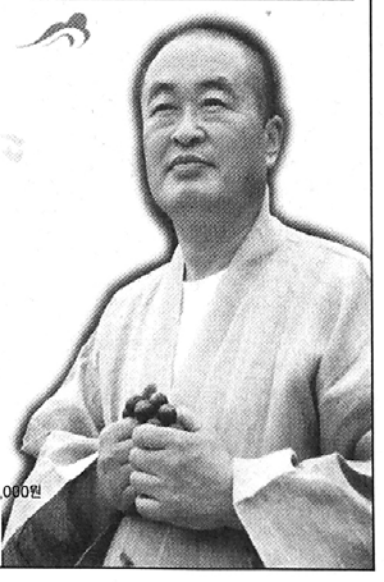


신국판/328쪽/6,800원

삼중스님 에세이

걸망에서 배운 인생

어머니의 애잔한 눈길은 아직 가슴에 있고,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신국판/320면/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禪과 현대시 접목했어요"



'속 벽암록' 마무리한 신동춘 교수

25년 勞作… 4행시 1백칙 완성
영·일·불·중·희랍어로 번역 예정

누군가를 섬겨왔다
무언가를 섬겨왔다
이제는 내 마음 하나 섬길 때이다
한 발 다가섰다

위 시는 영문학자이며 시인인 신동춘교수(한양대)가 최근 완결한 시집 〈속(續) 벽암록〉의 제 47칙이다. 완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린 〈속 벽암록〉은 짤막짤막한 4행시 1백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71년 고통과 기쁨, 인간과 자연, 시와 언어 그러한 것들이 물밀듯 범람하여 눈앞이 까뭇까뭇 흐려올 적에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러한 것들이 내 의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무렵 봉은사 역경번역도량 강의에 동참, 〈벽암록〉을 만났습니다."

송대에 집대성된 〈벽암록〉은 선의 황금시대인 당대의 전통적 선풍을 전수하는 일대 詩篇이다. 설보중현(雪竇重顯 980~1052)이 전등록 1700 공안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0칙을 가려내어 송고(頌古)를 달았고, 그후 임제종의 원오극근(圓悟克勤)이 각 칙마다 수시(垂示) 저어(著語) 평창(評唱) 등 착안점이라든가 해설을 추가했다. 〈벽암록〉은 선불교의 진수인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뜻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문학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禪'의 고전이다.

"창작과 학문을 통해 사사무애(事事無碍)를 체득하는 길을 모색해온 내게 벽암록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평창(評唱)을 풀어쓴 부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평창은 초현실주의 발상을 닮았을뿐 아니라 피상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사물들이 밑바닥에서 진하게 맥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 그때부터 신교수는 난해한 구절들을 생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어제, 오늘과 내일의 일순(一瞬)을 꿰는 유정과 무정, 일체 존재하는 것의 실존적 비의가 무수한 퇴고를 거쳐 암호같은 짤막한 시편이 되었다. 마음으로 본 현실의 세계가 치열한 구도정신에 의해 '오늘의 벽암록'으로 태어난 것이다. 한칙 한칙이 하나의 완전한 시가 되면서 그 자체가 또다른 시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門) 역할도 하고 있다. 신교수는 〈속 벽암록〉 발간과 더불어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희랍어 등으로도 번역시집을 낼 계획이다.

"환경파괴등 한계에 이른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원형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의 선사상입니다. 선과 현대시의 접목—이것이 내 시의 화두이며 〈속 벽암록〉은 그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는 8월 한양대를 정년퇴직하는 신동춘교수는 퇴직기념으로 〈신동춘 전집〉을 한양대 출판부에서 낼 예정이다. 〈속 벽암록〉을 비롯 그동안 발표한 시 수필 논문 등을 모아 전 5권으로 묶는다. 그런데 왜 〈속(續) 벽암록〉인가. 돈연스님이 80년대 〈신(新) 벽암록〉이란 시집을 냈기 때문이다.

이경숙 기자

불교전통문화예술 「독일나들이」


◇동희스님


◇운붕스님


◇정옥녀씨


◇이영희교수

독일의 함부르크와 베를린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이 선보인다.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베를린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불교전통문화예술의 밤'. 오는 5월 3~5일 베를린 국립민속박물관과 함부르크 우파파부리크 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공연은 특히 인간문화재 스님들이 영산대작법과 승무 등 불교전통예술을 공연할 것

함부르크·베를린서 5월3~5일

동희스님—영산재, 운붕스님—승무
찬불가·무용·의상발표 등 다채

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동희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비춤 바라춤 법고 등을 선보이고, 살풀이·승무의 전수자 운붕스님(한국불교전통문화예술원장)은 살풀이와 승무를 공연한다. 또한 국제불교합창단(단장겸 지휘자 정옥녀) 35명도 행사에 동참, 찬불가 '연등' '부처님 오신날' 등과 가곡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등을 연주하게 된다. 이밖에 무용가 이영희교수(경성대)의 창작무용 '제행무상의 법을 의지하여 가다'와 미술디자인연구가 이기향교수(한성대)의 '피안을 향하여 가다' 등 탱화에서 소재를 얻은 불교전통의상발표회도 화려하게 펼쳐진다.

외국에 사는 한국교포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구인들에게는 한국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정옥녀단장은 "유럽에서 전통문화공연과 함께 불교합창이 울려퍼진다는 것은 한국불교예술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기회"라며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으로 이번 행사가 마련됨을 더욱 뜻깊게 여겼다. 〈숙〉

"불교문화 발전방향 모색"

미술·문학·음악·성보 주제별 세미나
5월 20~2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

둔화 음악 미술 문화재 등 불교문화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대 토론회가 개최된다. 조계종이 주관하고 봉축위원회와 각 문화관련 단체들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20일 미술 21일 문학 22일 음악 23일 성보문화재를 각각 주제로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일간에 걸쳐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다.

'21세기를 앞둔 불교미술의 진흥'을 큰 주제로 20일 열리는 미술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불교미술의 진흥방안(문명대 동국대 교수)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논의되며 불교미술의 전승과 발전의 기틀을 모색해 본다.

'불교문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큰 주제로 열리게 될 21일 문학세미나에서는 △불교교문학의 정의와 특징(홍기삼 동국대 교수) △불교문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김재홍 경희대 교수)가 각각 발표된다.

22일 개최되는 '찬불가 4반세기, 점검과 전망' 세미나는 문화사회부장스님의 '불교포교와 신행에 있어서의 찬불가의 역할' 제하의 기조발표와 △불교노래의 가사에 대해(반영규) △불교음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서양음악에 의한 찬불가의 창작 △국악의 새로운 해석과 불교음악의 재창작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불국사 해인사 종묘 등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성보보존의 효율적 관리와 창조적 계승을 위해 실시되는 23일 성보문화재 세미나는 성보보존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모색이 펼쳐진다.


◇제15회 대한민국사진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김기봉作 '萬法歸一'.

제15회 대한민국사진전
불교소재작품 다수 입상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이봉하)가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사진전람회에서는 종교소재 작품들이 다수 입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컬러작품 '무엇을 간구하시는지요'(김익종)와 특선으로 뽑힌 '만법귀일'(김기봉), '願'(이평수), '여가'(문금영) 등이 눈길을 끈다. 총 8백48점이 응모해 대상·우수상외 특선작 9점, 입선작 1백27점이 뽑혔다. 입상사진전은 오는 26일~5월8일까지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인천·울산·제주·광주·대전·대구 등 전국에서 순회 전시된다.

제14회 불교아동문학상
동시작가 김종상씨 수상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제정 제14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에 동시작가 김종상씨(유석초등학교 교감·사진)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동시집 〈나무의 손〉. 시상식은 오는 6월 22일 오후 3시 삼청동 칠보사에서 갖는다. 김종상씨는 14권의 동시집과 33권의 글짓기 및 독후감, 교육관련 도서를 펴냈으며 그가 쓴 1천편의 동시 가운데 4백여편이 등요로 작곡됐다.

한편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는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오는 27일 중앙승가대 법당에서 불교유치원 포교교재 20권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거행한다.

반가사유상 모시기 '서원전' 열린다

5월 8~14일 서울 조형갤러리

서옹·서암·월하스님 작품등 전시

본지가 펼치는 데생용 미륵반가상모형 보급운동이 미술·사회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석조미륵반가사유상과 도자 3천불 반가사유상을 모시기 위한 서원展이 봉축기념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조형갤러리에서 열린다.

대방사(주지 도안, 경남 사천시) 주최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역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옹스님의 '佛', 서암스님의 '無我', 현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世界一花' 등 큰스님들의 작품과 대방사 주지 도안스님의 서예 60여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방사에 봉안될 석조미륵반가사유상은 높이 15m, 폭 5m, 무게 2백50톤의 초대형 불상이며, 미륵전에는 국보 미륵반가상을 본뜬 높이 34㎝의 도자 부처님 3천불이 봉안된다. 미륵전은 이미 공정이 80% 정도 마쳐진 상태.

도안스님은 "미륵도량불사 후 불교와 제 과학과의 접목을 모색하며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불교사상연구소'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는 그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대방사 (0593)33-5197

문화소식

한국 현대시 1만여편 CD롬에

보고 들으며 한국의 명시를 감상하는 CD롬 '한국의 현대시'가 나온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는 지난 1백년간 발표된 詩중 1만8백67편을 엄선해 싣고 해석을 단 CD롬 '한국의 현대시'를 제작해 지난 12일 연구소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이 CD롬에는 시 전문이 수록되고 평론가의 해설, 시인소개, 현대시사연표, 문학용어 설명, 시어풀이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놓고 있다. 5월중 발매 예정.

정토합창단 정기연주회

정토사 정토합창단이 창단 4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7시 울산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찬불가와 가곡이 실내관현악단 협연에 의해 연주되며 울산상고 남성합창단이 찬조출연한다.

5월 19일 제1회 茶詩 백일장



(사)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감승희·사진)은 오는 5월19일 오전10시 덕수궁내 궁중 유물전시관에서 제1회 茶詩 백일장을 개최한다. 시·시조 부문. 참가신청은 5월1일부터. (02)732-9027

◇기사넘쳐 '물심사심' 쉽니다.

이 시대 포청천 이인제 경기도 지사님! 부처님의 가피력이 영원하소서

28년 전에 한푼의 보상금도 없이 경기도가 보상의무자인 하천공사로 전재산인 농토가 하천이 되어 버렸지만 소송은 커녕 차비 한 푼 없는 처지로 지난 28년간 계속하여 내용증명으로 경기도에 정당한 보상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토지소유주였던 어머니는 2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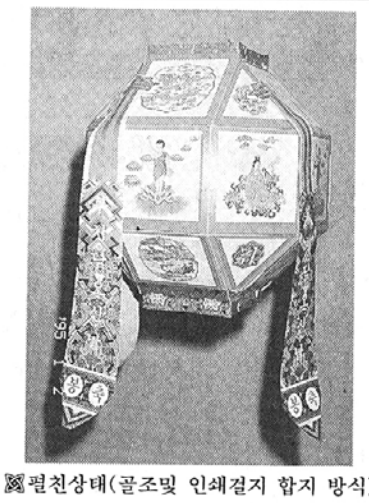
작년에 또다시 보상을 신청했으나, 이 시점까지 보상에 관한 합의는 커녕 단 한번의 성실한 보상협의조차 없었기에 본 토지의 보상이 국가의 채무로는 성립조차 되지 못했음에도, 보상의무자인 경기도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국가채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 및 소송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책임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님에게 위법하게 전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저희 아홉 남매는 너무도 억울하여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차례로 분신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살보다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자애로운 영산 대선사의 인도로 이인제 경기도 지사님을 뵈었습니다.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법률지식으로 지사님은 이같은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며, 법 규정대로 정당한 보상이 경기도에 의하여 직접 이행될 수 있게 산하 공무원을 독려함으로써 지난 28년간 어머님의 억울함 해소는 물론 저희 아홉 남매의 생명까지도 구해 주셨습니다.

이미 상식화된 법 규정이 아무리 엄존해도 지난 28년 간 전임자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누적된 위법행위로 인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책임져야할 자신의 의무라는 결정보다는 위법하지만 단 한마디 스스로도 납득못할 엉뚱한 주장만으로도 가능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거의 모든 공직자의 일반적 태도임에도 이인제 경기도지사님의 이같은 정법행 태도는 이 시대 공직자의 사표요, 둘도 없을 지도자만이 지닐 수 있는 고매한 인품과 바른 지도력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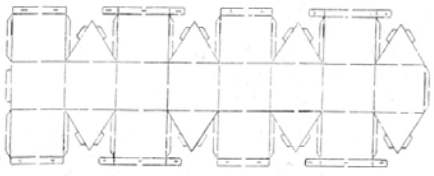
신현주 신현숙 신현자 신현옥 신현순
신현경 신현철 신현애 신현석 합장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청청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기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대구구도회 창립 20주년

철야정진·교리공부 '철저'

기초과정 수료 5천명…30여명 출가
'자비모임' 불우이웃 정기방문 위로

아직도 스산하기만한 3월 넷째 토요일밤의 해인사 지족암. 법당에는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좌선으로 밤을 지새는 불자들이 있다. 이들은 매월 한차례 지족암을 찾아 철야정진법회를 갖는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권오주, 이하 구도회) 회원들.

구도회는 지난 76년 첫 기초과정강좌를 가진후 오는 27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전통 깊은 재가신행단체다. 유마거사와 승만부인으로 대표되는 재가주의를 표방하는 구도회원들의 가장 큰 행사는 년2회 개최하는 기초과정강좌. 큰스님과 석학들에 의한 1주일간의 강좌가 끝나면 사찰수련회를 갖는다. 이 시한부 출가는 권회장의 말을 빌면 '머리속에 든 지식을 심장속으로 넣는 작업'이 된다.

40회를 맞는 기초과정강좌 수료생만도 5천명에 달한다. 그동안 구도회를 다니다 출가한 스님은 약 30여명, 매년 한명이상 출가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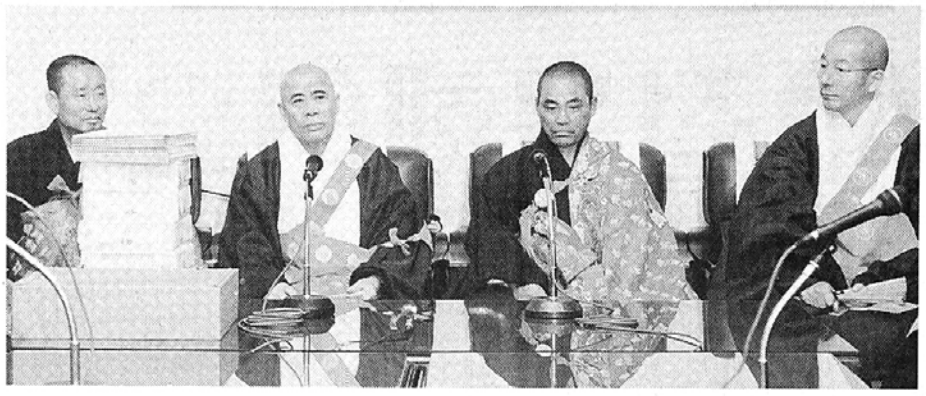
구도회의 큰 특징으로는 자율적 운영과 강도 높은 정진을 들 수 있다. 또한 화요요가법회, 수요경전법회, 금요정기법회, 토요좌선법회, 일요어린이 불교학교, 야외법회 등 다양한 법회를 개설해 놓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그룹스터디식으로 운영되는 수요경전법회는 구도회의 모체가 된 모임. 지난 73년 김현준씨(효림출판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대학생으로 결성된 영어경전읽기 모임이 구도회로 발전했다. 법당에는 불서 3천여권이 빼곡이 들어차 있는 서가가 마련되어 있어 미니도서관 역할을 한다.

한편 화성양로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비모임'은 매월 불우이웃단체를 방문한다. 월간 구도회보는 철저한 재정공개, 선지식의 법문, 교리소개 등 알찬 내용으로 채워져있다.

"아무리 절을 많이 하고 경전을 자주 읽어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회원들의 이구동성.

요즈음 구도회원들은 미래구상에 한창이다. 인터넷 가입을 모색중이며 시민을 상대로 한 불교서적 대여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시내 중심가로 구도회관을 이전할 서원도 세워 놓았다. 20세 성인이 되는 대구구도회는 바야흐로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한·일 천태종은 지난 15일 충본산 구인사에서 양측 대표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일 천태종 동반자관계 '첫발'

15일 구인사서 대표간담회

학술·문화·인적교류 '물꼬'

남북화해·세계평화등 모색…韓中日 유대방안 논의

천태종은 지난 15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과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 스기다니 기쥰스님과 총본산 연력사 집행(주지) 고바야시 류조스님등 양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천태종 간담회를 열고 양국 불교발전과 천태종의 상호협력을 모색하여 남북화해와 세계평화에 기여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천태종조 지자대사의 열반 140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한·중·일 3국의 인적 학술적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본에서 45일간 개최되는 천태지자대사 추모행사에 삼국합동 법요식을 거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행사기간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비(碑)'도 건립할 예정이어서 아시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일 천태종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구호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일본 천태종의 르완다,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각국에 초등학교 지어주기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와함께 난민구호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각국의 각 종교지도자들을 초청 '세계 서미터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평화를 호소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79년부터 친선교류를 시작해 온 양국의 천태종은 이번이 첫 종단간 공식교류이다. 일본 천태종은 오는 10월행사에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공식 초청했으며 98년 서울 관문사 낙성식에 일본 천태종 좌주(종정) 스님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6일에는 부산 삼광사를 방문하고 오후 9시 만찬식을 가졌다. 만찬식에서 한·일 천태종 양측은 "이번 공식 친선교류가 한·일우호를 통한 아시아평화의 원동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천태종은 법형제로서 우호가 증진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2부작 '고려대장경' 제작

불교TV 세계 문화유산 당위성 화면설명
경판제작과정·보존신비등 다뤄

"문화유산은 살아있다!" 불교TV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려대장경과 불국사 석굴암의 신비를 조명하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석굴암과 고려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치 인정부분의 당위성을 밝혀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내년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앞두고 불교TV가 자존심과 사명감을 내걸고 최고의 역작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불교TV는 그 첫 출발을 오는 초파일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대장경(가제 PD최세영)'을 통해 펼쳐보일 계획으로 이미 3월말 1차 답사를 마치고 지난 17일 해인사 장경각 촬영 등 본격 제작에 돌입했다.

'고려대장경'은 지난 3월 개최된 해인사 대장경판 보존 학술회의의 고려대장경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인사 장경각 연구소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려대장경의 신비를 풀어나가게 된다.

먼저 제1부 '대결집(가제)'에서는 나를 버린 채 오직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원력으로 탄생된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배경과 제작과정, 조성의 성공적인 요인을 짚어보게 된다. 이어 2부 '고려대장경은 살아있다'에서는 750년 동안 온전히 보존돼 온 고려대장경 보존의 신비를 검증과 과학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밝혀나갈 계획이다.

최세영 PD는 "고려대장경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극한 불심이 깃든 신앙의 다상으로서 고려대장경 복원의 참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 제작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초파일 방송이후에도 계속적인 조사와 검증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내년에 방송될 예정인 석굴암과 함께 우리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진각종 새 교육원장 성초대정사 선출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 17일 총인원에서 재적의원 37명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304회 정기중의회를 개최하고 유지재단 세입 1백20억중 1백17억원으로 결산됐으며 신임교육원장에 성초대정사(서울 남부심인당)를 선출했다.

이날 중의회에서는 90억원의 95년도 통리원 교육원 각부서 결산안을 통과했다.

방송가 소식

'만암대종사 다비식' 본선진출

서울 다큐영상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혜화동 동숭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에 불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한편이 본선에 진출해 눈길을 모았다. 다름 아닌 김선호씨(씨엔필 제작부 팀장)의 '만암대종사의 다비식-한국의 불가사의'가 그것.

이 작품은 한국의 불가사의 중 제1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고종과 조계종 종정을 지낸 만암스님의 백양사 다비식의 특수한 절차와 사리가 출토되는 신비한 현상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 당시 만암스님의 다비식 진행과정을 생생히 지켜보았던 수산스님의 증언도 담고 있다.

김선호씨는 "과학시대인 현대사회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우리문화의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것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에는 해외 초청작품의 하나로 95 야마가타 영화제 특별상 수상작인 아난드 팻워드한(Anand Patwardhan)감독의 'Father, Son Holy war'도 소개됐다. 이 작품은 인도의 종교전쟁을 영상으로 다뤘다.



"노인복지위한 노비구니의 원력"

법성스님 '김병조쇼' 출연

83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얼마전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성라원을 개원한 원로 비구니 법성스님이 지난 23일 불교TV '김병조의 이야기쇼'에 출연(사진)했다.

성라원 설계에서부터 개원까지 오로지 불심하나로 불사를 이뤄냈다는 스님의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수행과정의 일화가 잔잔한 감동으로 안방을 훈훈하게 했다.

불교TV이사회 업무별 이사선임 결의

불교TV는 지난 15일 불교TV 9층 회의실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담당별 이사제 도입과 이의 추진을 위한 상임이사 선임을 결의, 대표이사 태응스님에게 선임을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제2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 선임된 태고총 총무원장 혜초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12명 이사와 기존 이사들간의 상견례도 함께 했다.

부처님오신날

양력 4월8일 사찰단위 봉축행사 성대

법회·석존상 가장행렬·공연등 다채

부처님 오신날을 양력으로 기념하는 일본의 전국 각 사찰은 지난 8일 다양한 봉축법회와 행사를 봉행했다. '하나마쯔리' '관부쯔에'라는 이름으로 각불교교단의 대본산 총본산 지역불교회 각사찰단위로 부처님 탄신일 경축행사를 개최, 법회를 봉행했으며 동시에 가무와 각종 공연, 가장행렬들도 활발히 진행했다.

동경의 시따마찌 불교회에서는 그지역 23개소의 사찰과 연합하여 하나마쯔리 경축행사를 개최했으며, 교토지역의 불교연합회, 요코하마시의 효도교단, 쯔끼지본원사에서도 경내의 꽃이 만발한 가운데 탄신축하 법회를 봉행했다.

본원사 하시라마쯔스님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것은 자기자신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자체에 존귀함이 있는 것"이라며 부처님 탄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각 지역의 거리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연주, 하얀 코끼리모형에 석존상을 실은 가장행렬, 탄생불에 감차를 뿌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는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감차잎이나 꽃들을 나눠주기도 했다.

한편, 금년 봉축행사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법회가 봉행,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돼 봉축의 국제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일본 부처님오신날

목탁소리

검사와 달(月)

이 경 숙 〈취재2부 차장〉

〈달을 듣는 강물〉이란 매우 詩적인 제목의 책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나오자마자 불교서점 순위에서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일반 대형서점 순위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상무대 이전비리, 수서사건 등을 담당한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해온 검사란 점이 주목을 받고 책에 대한 관심으로 증폭되는 것 같다. 자료가 거의 없어서인지 수월스님이 전설속의 인물처럼 그려져있고 내용이 반복되는 점이 다소 거슬리기는 하다.

그러나 평생동안 일을 하여 중생을 부양하고 자신의 삶을 찰나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면서도 그 삶 그대로를 모두 남에게 주어버린 한 스님의 자비행이 삼독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둥이며 벼락'처럼 다가온다. 책을 읽고 난 후 느끼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수월스님과 같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을 마음속의 달로 삼아 행적을 좇은 그 열정에 부러움이 느껴진다.

현대인에겐 영웅이 없다고 한다. 기껏 좋아하는 인물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같은 인기스타이고 그것도 그들의 허상을 보고 열광할 뿐이다.

일생을 바쳐도 좋을 만큼 좋아하고 존경할 인물을 가슴속에 담는 일이 어쩌면 현대인들에게는 손해보는 짓이고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될런 지도 모르겠다. 대체적으로 좋아하고 좇고 싶은 것은 돈 명예 권력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람쥐 쳇바퀴같은 매일 매일을 사는 우리 일반사람들이 자기자신이나 타인에게 자주 묻는 질문중 하나가 이런 것일 게다. "뭐 재미있는 일 좀 없나? 따분해 죽겠다"는 것.

이러한 점에서 직업때문이 아니라 마음 속에 달을 품고 그 삶의 자취를 찾는데 십여년의 세월을 신명나게 바치고 그에 대한 글을 써 널리 알린 김검사의 뜨거운 열정이 부러운 것이다.

우리 독자에게는 김진태 검사나 그가 밝혀낸 달(수월스님)의 행적 모두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봉축 현수막 제작 보급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두터운 불심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 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본 감로기획에서는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제작 보급합니다.

봉축 리본
수동식 꽃리본 100개-20,000원
기계식 꽃리본 100개-35,000원
※1,0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색상(꽃분홍, 분홍, 노랑…)

봉축 어깨띠
고급공단, 3색칼라 1매…2,500원
※1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 드립니다.
색상(노랑색, 핑크색)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원효사
■ 크기 및 보급가 / 90cm×5m · 35,000원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도선사
■ 크기 및 보급가 / 90cm×6m ·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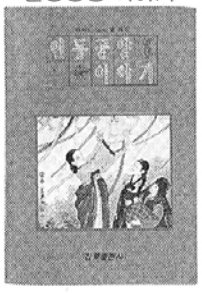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조계사
■ 크기 및 보급가 / 90cm×8m · 50,000원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738-868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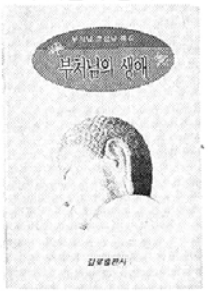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윤거사의 등공양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200원
크기 / 신국판 × 64페이지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라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사법연수생 신행모임

'다르마법우회' 창립

매월 두차례 정기법회·매주 교리공부 정진

사법연수생들의 신행모임인 '다르마법우회'가 창립됐다.

사법연수원 제27기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르마법우회는 지난 1일 성남 정토사에서 37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매월 두차례의 정기법회와 매주 1회의 불교공부모임을 통해 신심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고시 합격자들인 예비법관들의 연수기관으로, 이곳의 2년과정을 수료하면 법원과 검찰에서 판·검사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사법연수원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신자들의 모임은 있었으나 불교모임은 없었다. 지난 80년과 90년 몇몇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모임이 꾸려졌으나, 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모임도 명맥을 잇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이곳 연수원교수로 부임, 다르마법우회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한 김희옥교수(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연수생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관으로 진출하면 그만큼 불교적 심성이 필요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추구하는 법조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법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이승형씨는 부처님의 법과 세간의 법이 둘이 될 수 없다며 "법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만인의 평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한국사람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불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적 가치를 함양해야 올바른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다르마법우회 창립이 갖는 의의를 설명했다.

법륜스님(한국불교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지도법사로 모신 다르마법우회는 지난 15일 전조계종종정 서암스님을 초청, 창립 이후 첫 법회를 봉행했다.

〈정성운 기자〉



◇사법연수생들의 신행모임인 다르마법우회는 지난 15일 서암스님을 초청해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초파일 봉축준비위 결성

위원장에 도봉스님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부산 봉축행사 준비위원회 결성법회가 지난 14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려 준비위원장에 천불사 주지 도봉스님이 위촉됐다.

이날 결성법회에서는 또 대회장에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집행위원장에 혜총스님, 봉행위원장에는 부산불교신도회장 류진수씨를 위촉하고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연합봉축대법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준비위는 봉축 제등행렬은 교통불편을 감안해 폐지키로 하고 올해부터 카퍼레이드 형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산 순환도로변에 대원회, 도라지 방생

대원회(이사장 박윤호)는 지난 14일 서울 남산일대에 도라지를 심는 방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부 성인부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 공원 이용객이 많은 순회도로변에 도라지를 심었다.

전방OP 봉축점등 29일 까치봉서 시작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북한주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밝히는 봉축등이 29일 까치봉 점등을 시작으로 13개 전방부대에서 봉행된다.

전방부대 봉축 점등일정은 다음과 같다.

까치봉(4월29일) 천지OP(4월30일) 도라OP(5월1일) 애기봉 OP(5월2일) 태풍전망대, 봉일전망대(5월3일) 멸공OP, 509OP(5월6일) 종각OP(5월7일) 을지전망대(5월8일) 백암OP,아산OP(5월14일)

조계종 10기 행자교육원 회향

2백51명 수계… 사미니가 7명 많아

조계종 제10기 행자교육원 회향식 및 수계식이 지난 16일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주지 오녹원) 만덕전에서 봉행되어 남행자 1백22명과 여행자 1백29명등 총2백51명의 행자가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관련인터뷰 4면〉

22일간에 걸친 교육의 마지막날인 이날 회향식 및 수계식에는 송월주 총무원장을 비롯 교육원장 원산스님, 행자교육원장 녹원스님, 유나 보성스님, 교수사 석성우스님과 행자교육생등 3백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월주스님은 치사를 통해 "초발심이 변정각이니 초발심때 갖는 해탈과 중생제도의 서원을 굳게하여 정진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녹원스님은 교육필증을 수여하면서 "지난 일정동안 고행에 고행을 거듭한 것은 속연으로서 몇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불종자를 심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향식에는 직지사 재무 장명스님이 교육원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5월14일 새회장단 선출 전국신도회 활성대책위

전국신도회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는 지난 13일 대책회의를 열고 다음달 14일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회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총회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정암사 개발반대' 천만서명운동

월정사 70여말사 신도회 '계획철회' 주장

오대산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17일 서별당에서 70여개 말사 신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제4교구 신도총회를 개최하고 '정암사 만항지구 개발반대 일천만불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신도회 간부들은 '함백산 정암사 만항지구개발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통해 "만항지구개발은 환경과 성지훼손이 우려되는등 부지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획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도회는 만항지구개발을 강행하면 강력 투쟁하기로 하고 개발을 반대하는 일천만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날 월정사 본말사신도회 간부들은 총회에서 김종락회장(월정사 신도회)과 채영주회장(삼화사 신도회)을 4교구 신도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봉축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조계종 4교구 신도회는 지난 17일 총회에서 정암사 만항지구 개발반대 입장을 밝히고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안동 제비원 미륵불 훼손위기

인근 주유소 건립·국도확장 예정 소음 진동 우려

경북 안동소재 제비원 마애미륵불(보물 제115호) 맞은편에 주유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성보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마애미륵불을 관리하고 있는 연미사주지 효성스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안동시가 마애미륵불에서 35m밖에 되지않는 곳에 주유소 업종허가를 인가했다"며 "주유소가 들어서면 경관훼손은 물론 소음 진동으로 불상의 균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제비원 부처님은 불교성보이면서 안동의 상징으로 주변에 업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난 16일부터 신도를 비롯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주유소 건립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문화재위원 이명식교수(대구대 박물관장)도 "문화재인근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시가 업종허가를 먼저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보물등의 문화재에서 1백m 이내의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한편 효성스님은 제비원 마애미륵불앞 10m 거리에 있는 안동-영주간 국도가 4차선 확장 예정구간으로 되어있어 이에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주사주지에 혜광스님 선출



◇혜광스님

제적 4명·공권정지 5명 재심 호계원 징계판결

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는 지난 16일 궁현당에서 산중총회를 갖고 혜광스님을 법주사 주지로 선출했다.

84명의 스님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신임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은 55년 범행스님을 은사로 봉선사에서 득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은적사 실상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은 지난 15일 제4회 재심호계회의를 갖고 제적 4명, 공권정지 5명등 징계판결을 확정했다.

징계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적: 도흥 덕수 윤성 원정, 공권정지 5년: 관명 각밀 정암, 공권정지 3년: 보장

"고속철 경주도심통과 강행할듯"

건교부, 형산강노선 지하화 연장 검토 백지화추진위, '反문화 정책' 비난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백지화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에 회신을 보내 "형산강노선의 지하구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주도심통과 강행의사를 거듭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시행청인 고속철도건설공단도 15일 '고속철도 주요사업 및 현황' 자료를 통해 "현재 공사추진이 중단된 고속철도 경주노선을 형산강노선의 지하화하는 방안으로 조속 결정토록 건의,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백지화운동추진위원회는 경주도심구간의 지하화는 경주와 문화재를 파괴하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밝히고 지하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럼을 5월초 개최키로 했다.

한국고고학회 임효재회장(서울대 교수)은 "유네스코에 세계 10대 문화유적지로 지정된 경주가 이제 여느 도시와 다름없는 몰개성한 대도시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반문화적 정책을 비난하고 고고학회를 비롯 관련학회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지화운동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17만여명의 국민서명을 첨부, 청와대에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경주도심통과노선(확정노선)를 강력히 주장해온 경주확정역사사수 범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성수·경주시의원)는 지난 3월호 월간 (경주발전)에 협의회 이름으로 '경부고속철도 노선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경주도심 15㎞ 우회노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 글에서 "경주만 통과하면 어느 노선이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승가대 김포학사 주변 주민들 60% 항공기 소음 큰불편 없다"

승가대 학생회 설문

중앙승가대학 학생회(회장 원철)가 지난 8일부터 6일간 지역주민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정사 일대 김포지역 주민 60.2%가 항공기 소음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음공해로 인한 이사계획 여부에 대하여 94.4%가 '아니다'고 응답하고 62.3%가 중앙승가대학의 설립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42.7%에 이르는 149명의 주민이 대화에 다소 지장이 되고 TV와 라디오 시청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계 큰일꾼 체육대회

불교계 신문·잡지·출판·방송사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단합도모의 장인 제1회 불교계 큰일꾼 체육대회가 지난 14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운동선수 후원의 밤 동국대, 야구부등 격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5일 엠배서더호텔에서 96 봄철 대학리그에서 강호 한양대를 물리치고 9년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오른 야구부 선수들을 비롯한 축구 농구 레슬링선수들을 격려키 위한 '96 동국대 운동선수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구총장, 정각원장 법산스님, 후원회장 정용길 행정대학원장, 야구감독 황동훈씨, 축구감독 최종덕씨와 선수 1백여명이 참석했다.

구독신청 : 737-0693

마음 고통도 즐거움도 놓아야

고가 닥치면 닥치는대로, 즐거운이 오면 오는대로 놓아야 합니다. 즐겁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로 변합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행스님 법회와 불교음악제

부처님께선
중생의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중생에게 "마음을 깨달아 부처 되는 길"을
가르치시고자 오셨습니다.
마음 - 그 무궁무진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주시고자,
여기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영원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지원장 혜 월
신도회장 김희남 합장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나
산에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그 뿌리를 의심하지 아니한다.
하물며 인간의 뿌리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하여
제 뿌리를 어찌 믿지 않고
없다 할 수 있는가?

- 대행스님 법어중에서 -

■ 일시 ····· 불기 2540년 4월 28일 (일) 오후 2시 ■
■ 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
■ 후원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광역시 ■
····· 불교광주방송, 전남일보, 현대불교신문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禪院)광주지원
우) 502 - 27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 - 5
전화 : 062) 373 -8801~3
팩스 : 062) 373 - 0174

건강백세 ⑪



코

우리는 콧속이 불편하거나 코맹 소리를 하면 흔히 축농증(蓄膿症)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비후성비염(肥厚性鼻炎)과 축농증은 그 증세와 발병위치가 전혀 다르다. 바깥의 공기는 콧속을 통과하면서 몸에 적당한 온도로 조절되며 먼지나 기타 불순물은 비강(鼻腔) 내 점막에 흐르는 점액에 의해 제거되어 폐로 들어간다. 즉 막으려는 생체반응이 콧물인 것이다. 요즈음 알러지 증상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우리주위가 예전과 달리 도시산업화로 인한 불순공기가 많아진 것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빈번한 점막의 자극으로 인해 비갑개(鼻甲介)가 붓게 되면 결국 콧속이 좁아지는 비강협착(鼻腔狹窄)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심할경우 점막조직이 자라나 더욱 호흡(呼吸)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수술로

재채기·콧물 불순물 막는 생체반응
딸기코 간기능 저하·폐장열독 원인

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집으로 올라 올 생각으로 대전역으로 나갔다.

에에 내가 생각을 하니 대구일 경산역 근처에 처제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나서 여기까지 온 김에 마지막으로 처제네 집에나 들러볼까 해서 열차를 타고 처제집으로 향하였다.

처제집에서 하루저녁 자내고 아침을 먹으려하는 참에 처제가 나를 붙잡다. "형부 우리집에 약 일주일만 있다 가세요. 그러면 옛날처럼 완전히 회복시켜 보내 드릴께요"하고 권하였다. 곰곰히 생각한 끝에 돈 안 들이고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교회에서 침괄명 여인네들이 와서 방안에 둘러 앉아 무엇을 외우며 나의 아픈 곳을 안수한답시고 찰싹찰싹 때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보냈을 때였다. 그네들이 "이분은 주님께서 받지 않아서 안되겠습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기에 나도 하는 수 없이 내일 집으로 가서 내가 마음 먹은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픈 곳은 한 두군데가 아니었다. 중풍으로 수족을 못쓰고, 디스크로 허리 못쓰고, 협압으로 중풍 일어날 때 안면 마비가 되어 우측 눈까지 보질 못하였다. 심이지장 궤양을 앓이 앓아서 무엇이든지 먹기만, 하면 속이 아팠다. 그래서 매일 스트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심하게 아픈 데가 다섯 군데나 되었다. 그리하여 그 교인들도 포기하고 돌아가고 나도 엘차에 몸을 싣고 집으로 올 생각에 처제네 집을 나왔다.

나와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봤자 모두에게 짐만 된다는 생각에 대전 시내를 자꾸이를 질고 더듬 더듬 큰 약국이다 다니며 "강도높은 수면제를 한알만 파십시요" 하고 먹고 죽을 약을 구하였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매일 강도 약한 것만 한알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이건 먹으나 마나이니 강도 높은 걸로 한알만 주세요. 영 잠이 안와서 그럽니다. 강한 약으로 한 알만 주세요"하면 역시 꼭 한알만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대전 시내를 다 돌다시피 하고 청주를 향해 갔다. 거기서도 약국을 다 돌아보신 후 또 잔천시내도 돌고나니 수면제가 약 삼십알이나 되었다. 이걸 한 입에 털어넣으면 고통도 끝나고 모두 다 끝나겠지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 보니 나의 아내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반기었다. 나는 준비 해 온 약을 서랍 밑에다 숨겨 두고 남바를 정해 놓았다. 그 날짜는 음력 10월11일이었다. 병이 앓아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회복할 기미가 없으면 준비해 온 약을 사용하리라 마음 먹었다.

병든 나보다 나를 위해 고생하는 아내 얼굴을 생각하니, 고통받으면서 치료비에 약값을 감당하느라 반죽도 안되어 보이는 아내의 얼굴이 불쌍하여 고개를 들고 볼 수가 없었다.

나는 광생을 두고 병수발만 한 아내를 위해 별로 해 준것이 없는데다 이번에 또 빚을 많이 지면 아내에게 너무나도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더 많은 빚을 지기 전에 내가 갚을 내야지 하고 더욱 결심을 하였다. 처음에 몇달은 내가 전혀 꼼짝을 못하니까 아내는 나를 간호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보내는데 집에 온지 며칠 안돼서 아내는 내 옆에 오더니 나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잘 들으라고 하였다. "당신 완전히 회복하여 막내아들 졸업하는 것 보고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돈 들어 가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도 못한다 하였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은 돈이 아니라 당신 마음만 단단히 결심하고 절에 가서 기도 정진만 하면 부처님의 영험을 반드시 얻어서 회복할 것이니 그리 하도록 하라"고 권했다. 나는 혼자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광생 죄만 지으며 살아온 나다. 그래서 더더욱 절에 가서 조금이라도 참회할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내가 죽기로한 날짜도 약 한달 남짓 남았으니 그동안이라도 아내 말대로 갔다 와야지 하는 생각에 아내뜻에 따르기로 했다.

목 영 태
〈경기도 안성군 죽산리〉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아내의 정성과 부처님 가피 ①

중풍·디스크·궤양등을 앓던 나는 병이 회복되지 않으면 먹으려고 수면제 30알을 사두었다



그림 · 이준석

♦ "Having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losses in the world, the wise, venerable man, who is endowed with insight, cultivates the happy world (of the gods)."

"현자와 성자들은 세상의 이와 같은 과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피어,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VASALASUTTA

So it was heard by me: At one time Bhagavat dwelt at Savatthi, in Getavana, in the park of Anathapindika. Then Bhagavat having put on his raiment in the morning, and having taken his bowl and his robes, entered Savatthi for alms.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날 거룩하신 스승은 사위성(舍衛城) 제타 숲,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의 공원에 계셨다. 그때 스승께서는 아침에 의복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갖치고 밥을 빌러 사위성(城)에 들어가셨다.

Now at that time in the house of the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피타 ㉜

Brahmana Aggikabharadvaga the fire was blazing, the offering brought forth. Then Bhagavat going or alms from house to house in Savatthi went to the house of the Brahmana Aggikabharadvaga.

그때 바라문 바라드바자의 집에는 성화(聖火)가 켜지고 제물이 올려져 있었다. 스승은 사위성 이집저집을 탁발하면서 그의 집에 가까이 가셨다.

* venerable man 성자
* endow (~에게) 부여하다
* insight 통찰력, 안식(眼識)
* vasala (빠알리어) 천민('sutta 천민에 관한 경전)
* dwell (v) 머무르다 (dwelt 과거형)
* Anathapindika (빠알리어) 급고독장자. 사위성에 살고 있는 부유한 상인
* raiment (n) 의복
* robe (n) 가사
* Savatthi (빠알리어) 사위성(城). 코살라국의 수도
* alms (n) 탁발(托鉢)

오종욱 기자



그림 · 심민섭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프래니 ㊦

J. D 샐린저 作

그 말에 레인은 눈썹을 치켜올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니?"

"아니. 오히려 경쟁하려고 하는 자신이 두려워서 연극부를 그만두게 된 거야. 내가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것이 부끄러워. 완전한 무명인(無名人)이 될 용기가 내게 없는 것이 싫어졌어."

그녀는 말을 멈추고 빠른 동작으로 우유잔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웨이터가 개구리다리 요리와 샐러드 접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프래니는 웨이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웨이터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는 프래니의 샌드위치를 내려다 보았다.

"담을 닦도록 해. 이미가 많이 젖어 있어."

"어머, 그래요? 미안해요, 레인."

프래니는 샌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는 뒤지기 시작했다.

"내 손수건을 쓰면 되잖아?"

레인이 잘 접혀진 하얀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핸드백은 여러 가지 소지품들로 가득차 있었다. 핸드백 속을 뒤지기 위해 그녀는 몇 가지 물건을 테이블 위에 꺼냈다.

"여기 있었군."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콤팩트를 꺼내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크리넥스로 빠른 동작으로 가볍게 이마를 닦아냈다.

"그건 무슨 책이지?"

레인이 물었다.

"무슨 책?" 그녀는 말했다.

"그 책 말이야."

그녀는 조그마한 책을 집어들어 핸드백 안에 다시 집어넣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제목은 〈순례자(巡禮者)의 길〉이야."

"경쟁하고 인정받으려는 자신이 두렵고 부끄러워"

레인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저자가 누군데?"

"몰라. 러시아 농민 같아. 책 어디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

레인은 샐러드 쪽으로 포크를 옮겼다.

"그럼, 줄은 책이야? 내용은 어때?"

"이 농민은 순례자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지를 알고 싶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기도할 때는 무어라고 말하는게 좋은가를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 러시아 전역을 돌아 다니는 거야."

"이 책, 많이 팔거라고 생각해."

아무 뜻 없이 그녀는 말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너는 그 버터 필요없어?"

"음, 가져가. 반납해야 하는 날짜가 많이 지나서 버터서 빌려줄 수는 없지만, 아마 아곳 도서관에도 있을 것야. 꼭 빌려 보도록 해."

"너는 샌드위치에는 전혀 손도 안 댔구나."

레인이 말했다.

"곧 먹을 거야"하고 그녀는 말했다.

"갈 안 잘라지네."

고기를 자르면서 레인이 말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결국 거리에서 만난 스타레츠에게 수수께끼 같은 기도 방법을 완전히 배워 습득하게 되지.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믿을 수 없는 기도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레인이 빵에 버터를 바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책, 많이 팔거라고 생각해."

아무 뜻 없이 그녀는 말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너는 그 버터 필요없어?"

"음, 가져가. 반납해야 하는 날짜가 많이 지나서 버터서 빌려줄 수는 없지만, 아마 아곳 도서관에도 있을 것야. 꼭 빌려 보도록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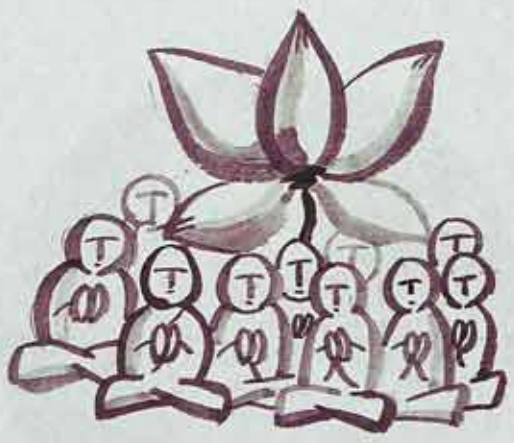
"너는 샌드위치에는 전혀 손도 안 댔구나."

레인이 말했다.

"곧 먹을 거야"하고 그녀는 말했다.

생활 속의 불교 ⑦①

분별에 얽매인 미개한 현대인들



한 뿌리에서 자라난 일세라도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똑같지 않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다.

한 부모의 자식들도 서로 다르다. 생김새가 다르고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다. 성격도 조금씩 서로 다르고 식성, 버릇, 재능도 갖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천차만별이다. 사람마다 지문, 성문(聲紋), 유전자가 제각각이듯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다. 그야말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툰다는 말 그대로이다. 혹은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 해도 좋다. 상대 세계의 모습인 것이다.

다르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개체의 특성을 발견한다.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무겁다는 식이다. 그래서 큰 것은 A이고 무거운 것은 B이다 라고 생각한다. 상대 세계의 차이는 바로 그런 비교·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비교·분석이 자세하고 치밀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로부터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란 따지고 보면 개개의 사물이 갖는 차이 -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정보를 많이 알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한다.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고 인간의 지적 능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상대 세계에 대한 비교·분석 능력은 이제 원자 세계를 해부하고 인간의 유전자 비밀을 캐내는 단계에 들어 서 있다. 그 결과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보아도 되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지식·정보·기술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갈등·불화·투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니,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욱 늘어나 송사·폭력·살인이 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는 인종 청소라는 무자비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 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쌓일수록 인간의 삶은 행복해져야 하는데 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가. 과학 기술의 눈부신 성과나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명 이기(利器)의 등장, 부의 축적 등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건정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요소들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개한 현대인이란 말인가.

상 대 세계는 분별의 세계다. 분별을 넘어 선 무분별의 경지에서 보면 일체는 평등이요, 하나라고 하지만 그것은 무위(無爲)의 세계이다.

함이 있는 욕의의 세계에선 일체는 차별이요, 각각은 서로 다르다. 분별인 것이다. 고로 우리의 인성(人性), 지식은 모두 분별의 산물이다. 우리의 삶도 분별에 기초한다. 그런데 문제는 분별이 분별에 머물지 않고 가치 판단이라는 상, 관념이라는 상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가령 A는 크고 B는 작다고 할 때 큰 것은 큰 대로 좋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좋다면 그뿐이다. 또 A는 B 앞에서 크고 B는 A 앞에서 작을 뿐이지 언제나 크고 항상 작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비교 속에서 좋은 것, 싫은 것, 나쁜 것을 가려 낸다. 바로 상을 짓는 것이다. A는 A대로 살리고 B는 B대로 살리면 A와 B의 차이는 그냥 지식일 뿐인데 A는 좋다고 취하고 B는 싫다고 버린다. 그 때문에 갈등·분열·투쟁·논쟁 따위가 따라 붙게 된다.

분 별에 좋다·싫다 하는 나의 가치 판단(관념)이 달라 붙으면 그로부터 편견과 아상(관념적 자아)이 탄생한다. 고로 분별은 아상을 낳고 아상은 온갖 불화·투쟁·불안·공포 따위의 고통을 만들어 낸다. 분별을 가리켜 무명의 핵심이요 고통의 원죄라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불법의 가르침은 이 아상을 죽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협찬 : 오 병 주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